

석사학위논문

토니 모리슨의 「솔로몬의 노래」에 나타난  
흑인정체성 추구과정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영 어 교 육 전 공

안 영 희

2004년 2월

토니 모리슨의 「솔로몬의 노래」에 나타난  
흑인정체성 추구과정 연구

지도교수 박 성 수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영어교육)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영 어 교 육 전 공

안 영 희

2004년 2월

안영희의

교육학석사(영어교육)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장 \_\_\_\_\_ 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년 2월

## <목차>

논 문 요 약 .....	iii
I. 서론 .....	1
II. 미국 흑인들의 상황 .....	10
1. 인종차별 .....	10
2. 흑인민권운동 .....	15
III. 자아파멸로 인한 정체성의 상실 .....	31
1. 지배이데올로기의 내면화 .....	31
2. 과격한 흑인민족주의 .....	34
IV. 흑인문화를 통한 정체성의 회복 .....	55
1. 정신적 지도자로서의 파일럿 .....	55
2. 밀크맨의 자아탐색여행 .....	59
V. 결론 .....	77
참 고 문 헌 .....	81
<b>ABSTRACT</b> .....	85

## 논문 요약

# 토니 모리슨의 「솔로몬의 노래」에 나타난 흑인정체성 추구과정 연구

안영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지도교수 박성수)

토니 모리슨의 작품 속에 주로 등장하는 주제는 흑인이 공동체와의 유대와 선조들의 문화유산을 통해 인종적 정체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모리슨은 인종차별주의에 대해 저항하고 흑인 고유의 문화의 복원과 전수를 통하여 자아를 확립해 가는 주인공의 모습에 중점을 둔다.

본 논문은 「솔로몬의 노래」를 통하여 흑인들이 겪고 있는 인종차별과 흑인민권운동과 관련한 내용, 그리고 백인중심 이데올로기에 대해 살펴보고 그것이 등장인물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주인공 밀크맨의 자아탐색 여행에서 일어나는 중심사건과의 연관성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1930년대와 40년대에 이르러 점차 많은 흑인들이 사회 참여를 하고 사회 내에서 그 존재를 인식시켜 나감에 따라 그들이 미국에 처음 발을 디딘 이후 지속된 차별과 불평등에 대하여 완전한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흑인민권운동이 발생한다. 흑인민권운동의 목적 중의 하나가 흑인들을 공동체 속으로 결속시키는 것이었는데 「솔로몬의 노래」의 이야기는 1931년부터 시작하여 소설의 중심사건은 흑인민권운동이 절정에 이르는 1963년 동안에 일어나며 한 개인과 그 개인이 속해있는 공동체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솔로몬의 노래」를 많은 학자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았는데 어떤 접근법에서 보든 이 소설의 중심 내용은 주인공 밀크맨이 자기 인식과 공동체로의 재결합을 위한 여행을 통해 흑인정체성을 확립해 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리슨이 밀크맨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흑인민권운동 기간동안 미국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들을 적절하게 엮어서 배치시킨 것 역시 중요하다. 모리슨은 밀크맨의 여행과 흑인민권운동의 면면들을 병치시킴으로써 흑인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 노력했던 기간들이 밀크맨과 다른 인물들이 개인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것과 때를 같이 한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인식시키고자 했다.

모리슨이 「솔로몬의 노래」에서 드러내는 중요한 낱자, 인물, 사건, 정책들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백인들의 인종차별주의자적 태도를 반영하는 것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등장인물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개인적인 투쟁에 관한 것이다.

작품에서 정체성을 상실한 인물을 살펴보면 우선 밀크맨의 아버지 마콘과 파일럿의 손녀 헤저를 예로 들 수 있는데 그들은 백인중심 이데올로기인 물질주의적 가치관과 이상적인 여성다움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내면화함으로써 흑인정체성을 상실하게 된다. 또 다른 인물은 기타인데 그는 흑인민권운동 기간동안 백인들의 인종차별적 행동에 맞서 싸우고 친구 밀크맨에게 민족의식을 일깨워주고 밀크맨으로 하여금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흑인 공동체에 관심을 갖게 하는 큰 역할을 하지만 그의 극단적인 저항과 폭력성은 마침내는 같은 종족마저 죽이게 되는 파괴적이고 왜곡된 결과를 낳게 된다.

이에 비해 정체성을 확립한 인물로는 밀크맨의 고모 파일럿과 주인공 밀크맨을 들 수 있다. 파일럿은 진정한 흑인문화 유산을 보유하고 밀크맨이 흑인문화의 의미를 인식하고 자아탐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신적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밀크맨은 처음에는 초점 없는 삶을 살고 같은 종족들이 겪고 있는 억압과 고통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으나 파일럿을 만나고 그녀의 이

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중요하고 생각하는 정신, 흑인문화를 고수하고 있는 생활 태도 등에 영향을 받고 동화되어 마침내 자아탐색 여행을 떠나게 되고, 그 여행을 통해서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자기 가족과 종족의 일원으로서의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다. 여행을 통해 새로 태어난 밀크맨은 돈이나 아버지의 명성이 아니라 자신의 내부에서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 마침내는 흑인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는 것이다.

토니 모리슨은 미국에서 흑인들이 흑인차별 정책과 백인의 인종주의에 의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거의 모든 등장인물들을 통하여 날카로운 관점으로 그리고 있으며 모리슨은 헌신하는 마음과 공동체와의 연대를 통해 현재 처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대안을 과일릿을 통해 제시하는데 그것은 밀크맨의 덴빌과 살리머로의 자아탐색 여행을 통해서 확장된다.

모리슨은 흑인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답을 과거와의 연계와 공동체에서 구하고 있다. 즉, 현재 흑인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핍박을 받고 차별 대우를 받고 있지만 선조들이 일구어 놓은 우수한 문화와 이웃과 민족을 사랑하는 공동체 의식을 통해 흑인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앞으로 더 나은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 본 논문은 2004년 2월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영어교육) 학위 논문임.

## I. 서론

미국 내에서 발생한 흑인민권운동(Civil Rights Movement)은 흑인들이 1670년대 미국 땅에 처음 발을 디딘 이후 지속된 차별과 불평등에 대하여 완전한 시민권의 획득을 위한 움직임이다. 1930년대와 1940년대에는 점차 흑인들의 사회 참여가 증가하고 사회 내에서 그 존재를 인식시켜 나갔고 1950년대와 1960년대는 미국 흑인민권운동이 가장 활발하고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낸 시기이다.

따라서 1960년대 흑인 작가들의 작품 속에 흑인 정체성 추구의 주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난다. 리처드 라이트(Richard Wright)는 소설 「토박이」(*Native Son*)속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인종차별로 인한 고통 속에서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투쟁을 그리며 그 투쟁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흑인종족 특유의 해방의지와 이런 해방의지를 후손에게 전승했던 흑인 민속문화를 그리고 있다. 「보이지 않는 인간」(*Invisible Man*)을 통해 흑인의 불가시성을 나타낸 랠프 엘리슨(Ralph Ellison)은 항의나 인종차별 등의 고발문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구전전통, 재즈, 블루스 등의 흑인문화의 다양한 소재들을 바탕으로 세련된 기교의 문학 형식을 창출함으로써 흑인문학을 한층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호이트 풀러(Hoyt W. Fuller)는 흑인문학의 확립을 위해서는 백인 비평가들의 편협한 가설들을 공격할 수 있는 새로운 비평가의 출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흑인 공동체 내의 단합을 이루고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흑인들 고유의 문화적 뿌리들을 회복하고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흑인 남성 작가들은 인종차별주의 사회에서 갈등하는 흑인 남성을 중심으로 작품을 썼기 때문에 인종주의와 가부장제라는 틀 안에서 이중으로 차별을 겪어야 하는 흑인 여성들의 독특한 경험을 그려내지 못하는 한계를 드

리낸다.

1970년대에 이르러 흑인 여성 작가들이 부상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백인들이 가하는 억압뿐만 아니라 흑인 공동체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 억압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엘리스 워커(Alice Walker), 게일 존스(Gayle Jones), 토니 모리슨(Toni Morrison) 등이 중심이 된 미국 흑인 여성 작가들은 인종적, 계급적, 성적으로 차별을 받는 흑인 여성들의 억압과 그들의 삶을 다각적으로 묘사하여 '흑인 여성 문학의 르네상스'<sup>1)</sup>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다.

흑인 여성 작가들 중 토니 모리슨은 현대 흑인들이 정체성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노예해방 이후 흑인이 백인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선조들의 긍정적인 문화를 잃어버린 데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각 작품을 통해 미국 흑인 역사상 사회적, 문화적 형태가 파괴되거나 변형되었던 시기를 포착하여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였다.

「비러비드」(*Beloved*)에서는 노예 해방령이 선포된 후의 혼란스러운 1870년대 배경이 되며 「가장 푸른 눈」(*The Bluest Eye*)에서는 흑인들이 북부로 대규모로 이동했던 1930, 40년대를 주로 다루고 있다. 또 「술라」(*Sula*)에서는 흑인이 처음으로 군인의 신분으로 참가했던 1차 세계대전에서부터 흑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기 시작했던 1960년대까지가 주된 배경을 이룬다. 「솔로몬의 노래」(*Song of Solomon*)에서는 노예해방 직후에서 1960년대까지의 시기가 다루어지고, 「타르 베이비」(*Tar Baby*)에서는 1970년대 말 혹은 80년대 초를 다루면서 많은 흑인들이 문화적 정체성을 상실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모리슨은 각 작품마다 흑인 가치와 백인 가치의 대립 구조를 토대로 흑인 인물이 백인문화에 함몰되어 파괴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추구하는 주제

---

1) 흑인여성문학의 르네상스는 1970년 밤바라(Toni Cade Bambara)가 27명의 흑인여성작가들의 해방 욕구를 담은 선집 「흑인여성」(*The Black Woman*)을 출판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같은 해에 토니 모리슨의 「가장 푸른 눈」(*The Bluest Eye*)과 엘리스 워커의 「그랜지 코플랜드의 세 번째 인생」(*The Third Life of Grange Copeland*)이 출판되면서 시작되었다.

를 통해 민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한다.

토니 모리슨은 그녀가 어릴 때 즐겨 읽은 톨스토이(Nikolaevich Tolstoy)나 오스틴(Jane Austen)의 작품들이 자기와 같은 어린 흑인 소녀를 위해 쓰여지진 않았지만 너무나 훌륭한 내용이어서 읽었다고 자주 이야기한다. 그녀는 소설을 쓰기 시작했을 때 자기가 자라온 문화의 본질과 느낀 감정들을 포착하여 쓰고 싶다고 말했다. 흑인 이외의 독자들에게는 생소한 흑인들의 생활상의 측면을 정확하게 정의 내리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글쓰기 목적은 흑인 독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전 인류를 위한 것이다. 제인 바커만(Jane Bakerman) 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I didn't want to explain anything to anybody else! I mean, if I could understand it, then I assumed two things that other Black people could understand it and that white people, if it was any good, would understand it also. (38)

나는 어느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설명하고 싶지는 않다. 무슨 말이나 하면 내가 어떤 것을 이해한다면 다른 흑인들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합당한 것이라면 백인들 또한 이해할 것이다.

모리슨은 그런 그녀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것 같다. 왜냐하면 톨스토이나 오스틴이 그녀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녀도 많은 비 흑인 독자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비록 독자들이 흑인 세계를 속속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삶을 규정지었던 사회, 정치적인 상황을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그녀의 작품을 감상하고 있는 것이다.

모리슨은 결코 감상적인 작가가 아니며 독자들이 그녀가 그린 인물들이 존재하는 작품 전체를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의도하여 작품을 쓴다. 그녀의 작품

은 흑인의 역사에 대해 심사숙고한 흔적이 보인다. 비록 그녀의 이름이 저자 명에 나오지는 않지만 모리슨은 흑인의 문화와 생활양식 등을 자세하게 그린 「흑인실록」(*The Black Book*)(1974)<sup>2)</sup>의 출판에 많은 도움을 준다. 1974년에 쓴 그녀의 에세이 「흑인역사의 복원」(*Rediscovering Black History*)에서 모리슨은 그녀가 흑인 역사를 강조하기는 하지만 좋았던 옛 시절에 대해서는 드러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흑인들에게는 좋았던 시절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흑인 저항의 당위성, 흑인들의 우수함과 성실함을 강조하고자 했는데 그것은 흑인 역사의 한 부분이며 자라나는 현 세대에 매우 유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폴리처상을 수상한 소설 「비러비드」는 남북전쟁 이후의 전 노예들의 삶이 녹아있는 가장 명백한 역사적인 내용의 소설이지만 「솔로몬의 노래」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들도 명백히 흑인 역사와 관련되어 있다. 「솔로몬의 노래」의 주요 이야기는 1931년부터 시작하지만 소설의 중심사건은 흑인민권운동이 절정에 이르는 1963년 동안에 발생한다.

토니 모리슨이 흑인 민권 시위나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기적인 정보는 없지만 그 운동은 명백히 그녀가 보여주는 흑인 역사의 영역에 들어가 있다. 그녀는 흑인을 위해서 이 운동이 일어난 시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이상화하지는 않았다.

흑인민권운동의 목적 중의 하나는 흑인들을 공동체 속으로 결속시키는 것이었다. 「솔로몬의 노래」를 포함해서 그녀의 많은 작품들이 한 개인과 그 개인이 속해있는 공동체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민권운동과 관련하여 그녀가 가지는 불만을 강력하게 표출하였는데 그녀는 많은 흑인들이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기보다 백

---

2) 1967년 랜덤 하우스 출판사의 선임 편집자로 승진한 후 1984년 그만둘 때까지 모리슨은 거의 17년 동안 흑인에 관한 책이나 흑인 작가들의 작품을 편집하는 일을 담당해 왔는데 그동안 노예들의 편지나 민담, 노래, 농담, 신문기사, 노예매매서 등의 모든 기록들을 모아서 미국 흑인의 역사와 문화를 집대성시킨 책이다.

인 문화에 동화되어 가는 것에 더 관심이 많다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상당히 많은 흑인들이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상실하고 그 결과로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다.<sup>3)</sup> 이렇듯 흑인민권운동은 모리슨의 마음속에 항상 자리잡고 있는 듯 하다. 본 논문에서는 모리슨이 흑인민권운동과 관련하여 특히 공동체와 관련하여 「솔로몬의 노래」에 어떤 식으로 표현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학자들이 「솔로몬의 노래」와 관련하여 역사를 이야기할 때 그 역사는 전통적으로 밀크맨(Milkman)<sup>4)</sup>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그를 이끌어 주는 그의 가족 역사를 언급하는 것이다. 공동체, 과거와 현재와의 연결을 통하여 이룩되는 자아발견의 주제는 모리슨 뿐만 아니라 다른 흑인 작가들의 작품에 흔히 등장하는 주제다. 결과적으로 발레리 스미스(Valerie Smith), 윌프레드 사무엘(Wilfred D. Samuels), 클레노라 허드슨(Clenora Hudson), 바바라 크리스티안(Barbara Christian) 등과 같은 학자들은 「솔로몬의 노래」를 밀크맨이 자기 인식을 위한 탐색을 통해 결과적으로 그가 속한 공동체와 재결합하는 내용에 중점을 둔 성장소설<sup>5)</sup>로 보고 있다.

「솔로몬의 노래」의 가장 일반적인 접근법 중의 하나는 작품 속의 표현방식을 고찰하는 것인데 많은 학자들은 이 작품을 신비적 사실주의(magical realism)<sup>6)</sup>로 분류하고 있다. 1988년 크리스티나 데이비스(Christina Davis)와의

---

3) Toni Morrison(1974) , "Recovering Black History",*The New York Times Magazine* (August 11), p. 14.

4) 본명은 Macon Dead III세인데 남편과의 불행한 결혼생활로 인해 아들에게 집착하는 그의 어머니 루스가 정신적인 공허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13살이 될 때까지 젖을 빨게 했는데 이 광경을 목격한 프레디가 밀크맨이라는 별명을 붙여준다.

5) 교양소설(Bildungsroman) :주인공이 그 시대의 문화적, 인간적 환경 속에서 유년시절부터 청년시절에 이르는 사이에 자기를 발견하고 정신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이를테면 자신을 내면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묘사한 소설. 성장소설 또는 발전소설이라고도 한다. 자기형성을 조장하는 요소가 외부의 힘인 경우에는 교육소설이라고도 한다. 여기에서의 교양 'Bildung' 은 형성 'bilden' 이라는 동사를 명사화한 것으로, 자기형성을 의미한다. 교양이란 단순히 지식이나 기술을 익히거나 기성사회의 질서나 규범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모습으로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인터뷰에서 모리슨은 그녀는 이 표현을 싫어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신비적 사실주의란 말속에는 정치성이 결여되어 있고 또한 그 표현은 그녀가 소설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방법과 다르기 때문이다”(it is a way of not talking about the politics. It is a way of not talking about the politics)(414)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브리엘 포먼(Gabrielle Foreman)은 작품 속에서 역사 구송자(griot)<sup>7)</sup> 또는 흑인 구전전통의 유지자, 그리고 밀크맨의 출생과 관련한 민간요법 사용자로서의 파일럿(Pilate)의 역할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신비적 사실주의를 도입한다. 산포드 핀스커(Sanford Pinsker) 역시 신비적 사실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는 신비적 사실주의의 사용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노래」와 알렉스 헤일리(Alex Haley)의 「뿌리」(*Roots*)를 병치시켜 모리슨의 문체를 논하려고 시도했다.

이 소설을 다른 방식으로 분류하는 학자들도 있다. 데보라 구스(Deborah Guth)는 모리슨은 작품 속에서 구전 전통을 많이 도입한다고 주장하였다. 밀크맨은 유기적인 이야기를 구성하고 그가 길들여져 온 문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파일럿나 그의 부모님, 그리고 덴빌(Danville)과 샬리머(Shalimar) 사람들에게 들은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조 베이즐먼(Joe Weixlmann)은 「솔로몬의 노래」를 탐정소설로 분류하는데 그는 밀크맨이 탐정이 되어 처음에는 금을 찾아다니다가 나중에는 가족의 역사를 탐색한다고 말한다. 제인 캠벨(Jane Campbell)은 이 소설을 역사적 로맨스로 분류하고 앤 임브리(Ann E. Imbrie)는 목가적인 소설(pastoral novel)이라고 주장한다.

이 작품에 대한 또 다른 접근법은 밀크맨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그의 자아탐색 과정과 연관시키는 것이다. 패트릭 브리스 조크(Patrick Bryce

6) '신비적(마술적)사실주의'란 매일매일의 생활 혹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의 역사성과 토속 신화나 전설과 같은 환상적 요소를 혼합하여 간단하고도 쉬운 문장으로 사건의 상황이 나 움직임을, 분석이나 설명함이 없이 붓가는 대로 서술해 놓은 것이다.

7) A griot is an oral historian . A keeper of the villages history and the genealogy of it's members. Originating in West Africa

Bjork)는 「솔로몬의 노래」가 “경이로운 탄생, 소외, 자아탐색, 대결, 그리고 공동체로의 재통합”(miraculous birth, alienation, quest, confrontation, and reintegration into community)의 패턴을 따를 뿐만 아니라 서양의 신화와 아프리카 신화를 함께 섞어서 쓰고 있다고 하였다.<sup>8)</sup>

어떤 접근법에서 보든 이 소설의 중심 내용은 밀크맨의 자기 인식과 공동체로의 재결합을 위한 여행이다. 또한 모리슨이 밀크맨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흑인민권운동 기간동안 미국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들을 적절하게 엮어서 배치시킨 것 역시 중요하다.

수잔 윌리스(Susan Willis)는 그녀의 저서에서 1960년대의 흑인들의 생활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조명하였는데, 모리슨과 관련된 장에서 “모리슨이 과거와 관련한 은유를 쓰는 것은 향수 때문이 아니라 역사적인 전통을 인식하는 과정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Morrison’s use of metaphors from the past is not rooted in nostalgia but represents a process for coming to grips with historical transition)(84)라고 주장한다. 궁극적으로 모리슨은 미국 흑인 공동체의 뿌리를 남부에서 찾았으며 북부로 이주한 그녀의 소설 속의 등장인물들은 남부와 재결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그리고 있다. 밀크맨은 남부 이주민 세대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과거를 찾기 위해 남부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해리 리드(Harry Reed)는 이 소설이 흑인 문화 민족주의적 측면에서 그러하고 있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모리슨이 소설 속의 흑인들이 백인 사회에 의해 확립된 기준에서 탈피하려고 애쓰기 보다 그 속에서 흑인 공동체를 재생산하도록 그리기 때문이다.(52) 그는 흑인 문화를 보존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파일럿을 연구하고 소설 곳곳에서 드러나는 아프리카의 구전 전통을 연구하였다.

베덜즈 펠타도(Wedertz Furtado)와 멜리사 워커(Melissa Walker)는 모리슨

---

8) *The Novel of Toni Morrison: The Search for Self and Place Within the Community*, P83

이 소설 전반에 걸쳐서 암시하고 있는 흑인민권운동의 구체적인 사건과 인물을 연구하였다. 펄타도는 모리슨이 남북전쟁과 흑인민권운동 사이의 유사점을 보여주기 위해 그 두 사건을 함께 제시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백인에게 의존함으로써 부정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립하게 되고 강인해 진다는 긍정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흑인의 경제적인 시련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연구하였다. 밀크맨은 그의 가족의 역사가 얽여있는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개인적인 억압이나 문화 역사적인 억압에 반응하는 방법을 선택해야만 하는 미국내의 젊은 흑인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멜리사 위커는 그의 저서 「흑인민권운동 속의 흑인여성작가의 소설」(*Black Women's Novels in the Wake of the Civil Rights Movement*)에서 구체적인 사건들을 중심으로 접근한다. 그녀는 모리슨이 소설 속의 사건들을 흑인민권운동 기간 중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과 연결시키기 위해 특정 사건에 부여한 날짜에 주목하면서 작품을 연구하였다. 그녀는 소설의 처음 부분에 언급되어진 1931년, 1896년, 1918년에 일어난 흑인민권운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위커는 기타(Guitar)와 말콤 엑스(Malcom X)를 동일 선상에 두고 밀크맨과 마틴 루터 킹 (Martin Luther King, Jr)을 동일선상에 둔다. 소설 속에 나타난 흑인민권운동에 대한 그녀의 설명은 매우 구체적이다. 그녀는 모리슨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외면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 밀크맨이 그의 주변 상황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소설 속에서 그렸다고 말한다.

II장에서는 텍스트 속에 제시되어 있는 인종차별과 흑인민권운동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 그것이 밀크맨의 자아탐색 여행에서 일어나는 중심 사건과 어떤 연관을 맺고 있으며 텍스트 속의 다른 인물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III장에서는 백인중심 이데올로기를 무비판적으로 내면화함으로써 흑인 정체성을 상실한 마콘과 헤거의 모습과 그들이 밀크맨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덧붙여 밀크맨과 기타와의 관계, 기타가 세븐 데이즈 클럽과의 관

런하여 자아를 파괴해 가는 과정을 살펴보았으며, IV장에서는 밀크맨에게 있어 정신적 지도자의 역할을 한 파일럿이 흑인문화를 지켜 가는 모습과 밀크맨이 덴빌과 살리머로의 여행을 함으로써 선조의 문화와 공동체 의식을 통해 자아를 회복해 가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모리슨은 밀크맨의 여행과 흑인민권운동의 면면들을 병치시킴으로써 흑인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 노력했던 기간들이 밀크맨과 다른 인물들이 개인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것과 때를 같이 한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인식시키고자 했다.

## II. 미국 흑인들의 상황

### 1. 인종차별

모리슨이 「솔로몬의 노래」에서 드러내는 중요한 낱짜, 인물, 사건, 정책들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백인들의 인종차별주의자적 태도를 반영하는 것들이다.

소설의 첫 단락에서 모리슨은 구체적인 낱짜를 제시한다. 즉 1931년 2월 18일 수요일에 로버트 스미스(Robert Smith)가 자애병원에서 뛰어 내리고 그 다음 날 루스(Ruth Dead)가 밀크맨을 낳았다는 것이다. 레나(Rena Dead)와 코린시안스(Corinthians Dead)가 가지고 있던 벨벳 장미 꽃잎들이 눈 위에 흩어지고 담요로 몸을 두른 파일럿은 나중에 밀크맨의 증조부 솔로몬의 노래로 알려진 노래를 부른다. 그리고 관중들은 그 장관을 구경하기 위해 몰려든다. 모리슨은 인종차별(Jim Crow)의 존재에 주의를 기울이는데 그것은 어떤 흑인도 자애병원에서 진료 받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고 어떤 흑인도 그곳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흑인들은 그들이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그 병원을 비자애 병원(No Mercy Hospital)이라고 불렀다. 병원의 인종차별 정책에도 불구하고 루스 데드는 자애병원에서 출산한 최초의 흑인이고 밀크맨은 그곳에서 태어난 최초의 아이가 되는데 그것은 그녀가 메인스 에번뉴(Mains Avenue)에 살았던 유일한 흑인 의사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붕 꼭대기에서 그들 머리 위로 떨어내린 스미스의 비행 때문이다.

이외에도 흑인차별에 대한 암시는 소설 전체에 걸쳐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코린시안스가 대학에 다니면서 몇 년 동안 불어를 공부했지만 그 대학교육이 그녀를 위해 아무 것도 해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마콘 데드(Macon Dead)는 자녀들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기 위해 대학교육까지 시켰지만

현실은 코린시안스에게 백인 가정의 하녀 이상의 직업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9)

코린시안스의 교육은 그녀에게 “현명한 아내와 어머니가 되는 법, 그녀가 속한 공동체의 문명화에 기여하는 법”(how to be an enlightened mother and wife, able to contribute to the civilization of her community)을 가르치고 "80 퍼센트의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일을 하는 것에는 적응하지 못하도록"(unfit her for eighty percent of the useful work of the world)(189) 만들었다. 그래서 모리슨은 1930년대와 40년대의 일반적인 여성 교육의 실태를 비판한 것이다.

코린시안스의 교육은 그녀가 전통적인 어머니와 아내의 삶을 살아가는데조차도 도움을 주지 못했는데 그것은 "그녀가 남편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기꺼이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기를 바라는"(wanted wives who would sacrifice themselves and appreciate the hard work and sacrifice of their husband)(188) 흑인 남성들에게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코린시안스가 대학에서 배운 것은 서구적인 것들이라 백인 중심적이어서 흑인 사회에서 그녀를 고립시키는 결과밖에 낳지 못했다. 모리슨은 흑인 여성을 위한 교육이 그들의 배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로 하녀라는 오직 한 종류의 직업에만 적합하도록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마콘의 자부심이 코린시안스를 통해서도 이루지 못하고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또한 마콘 자신에게 있어서도 공허한 것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마콘의 자기애는 흑인민권운동에서 흑인 지도자들이 주장하던 종류의 것과는 다르다. 마틴 루터 킹은 1960년 노쓰 캐롤라이나에서 있었던 연좌농성에서 흑인들의 문

---

9) 대학교육을 받고 외국 여행을 통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코린시안스가 백인 가정의 하녀일 밖에 얻지 못하는 것은 흑인여성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실제로 공립 학교 교사들이나 대학 교수들은 1950, 60년대 대학 시절동안 부족한 학비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하녀로 일한 경험이 있다고 말하며 졸업 후에도 흑인여자들에게 유일하게 가능한 직업이 하녀이므로 이 직업을 가진 여성들도 있다. 이승은(1995). Toni Morrison 연구 : 흑인 공동체와 여성의 자아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101에서 재인용

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의를 선택하는 대신 차와 집을 사는데 탐닉하고 있는 마콘 테드와 같은 흑인 중산층들을 배격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던 흑인들의 자아 존중의 부족은 여러 시위를 통해 치유되었다. 하버드 스티코프(Harvard Stikoff)가 그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1961년 2월 노쓰 캐롤라이나의 그린스보로의 한 식당에서 연좌농성<sup>10)</sup>을 이끌었던 프랭클린 맥케인(Franklin McCain)은 그 농성이 고귀한 것이었다고 회고한다.

I probably felt better that day than I've ever felt in my life. I felt as though I had gained my manhood, so to speak, and not only gained it, but had developed quite a lot of respect for it.

그 날 내가 느꼈던 감정은 지금까지 살면서 느꼈던 어떤 감정보다도 멋진 것이었다. 나는 진정한 남자가 된 느낌이였다. 그 뿐만 아니라 상당히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마콘은 백인의 부의 기준과 생활방식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기타와 밀크맨이 금을 훔치러 파일럿의 집에 침입했다가 돌아가는 길에 단지 흑인 이 밤에 차를 타고 돌아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경찰에게 조사 받다가 뼈가 든 자루가 발견되어 체포되었다. 그 때 마콘은 그들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 경찰서로 온다. 밀크맨이 그 날 있었던 일들을 그에게 설명하는 동안 마콘은 기타에게 두 번씩이나 “검둥이(nigger)”라고 불렀으며 경찰이 밀크맨이 자기 아들인

---

10) 1960년 2월 1일 노쓰 캐롤라이나 주의 그린스보로에 있는 흑인 대학 신입생 네 명은 백인들이 식사하는 올위스 식당에 갔다. 그곳에서 그들의 식사주문은 거절당하였으며, 흑인 학생들이 무언의 항의로 식당을 떠나려 하지 않자 식당은 아예 문을 닫아 버렸다. 그들은 학교로 돌아와 그 날 저녁 50명의 학생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비폭력과 기독교 교리를 바탕으로 한 수동적인 시위를 결정하였다. Harvard Stikoff, *Struggle for Black Equality*, p.71.

것을 알았으면 기타만 의심했을 것이라고 거듭 반복해서 말한다.

If you'd been alone and told them your name they never would have hauled you in, never would have searched the car, and never would have opened the sack. They know me. You saw how they acted when I got there (204)<sup>11)</sup>

만약 네가 혼자 있었고 그들에게 네 이름을 말했다면 그들은 결코 너를 잡아들이지 않았을 거고 차도 수색하지 않았을 테고 자루로 열어보지 않았을 거야. 그들은 나를 알거든. 너도 내가 왔을 때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았잖니.

하지만 밀크맨은 경찰이 자기와 기타를 풀어준 건 마콘 때문이 아니라 그의 지갑에서 나오는 돈 때문이라고 신랄하게 지적한다. 백인 경찰들은 흑인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를 보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피부 색깔로 평가한다. 그들은 아무 이유 없이 흑인을 검문한 것이나 흑인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것에 대해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마콘이 자신의 부에 대해 느끼는 가치는 백인사회에서는 공허한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백인들의 눈에는 그는 흑인일 뿐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과일렛은 소설 전반에 걸쳐서 마법적 능력을 가진 신비로운 인물로 묘사되는데, 그녀조차 밀크맨과 기타가 경찰서에서 풀려날 수 있게 하기 위해 경찰들에게 굴욕적인 자세를 보인다. 그녀는 평소의 강인하고 위엄 있는 모습과는 달리 움츠리고 왜소한 모습으로 불쌍해 보인다. 그녀의 키가 밀크맨과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밀크맨의 턱 높이밖에 오지 않는 경찰서장 키보다 훨씬 작아 보였다. 심지어 그녀는 경찰관 앞에서 흐느껴 울기까지 한다.

---

11) Morrison, Toni. *Song of Solomon* ( New York: Knopf, 1977) p204. 이하부터 이 책의 인용은 괄호 속에 페이지 번호만 기입할 것임.

파일럿처럼 자아 확립이 뚜렷한 인물이 백인들에 의해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힘들겠지만 그녀도 인종차별의 경험을 한 때가 있었다. 파일럿이 루스에게 마콘과 헤어지고 나서 겪은 일을 이야기하면서 버지니아에서 청소부로 있었던 경험을 말한 적이 있다. 그녀가 동료들에게 기차표가 얼마냐고 묻자 그들은 그저 웃기만 했다. 왜냐하면 흑인들은 기차를 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파일럿이 "흑인들이 멀리 가고 싶을 때 어떻게 하나"(How do colored people get where they want to go?)고 반문하자 "흑인은 아무 데도 가지 않는 걸로 되어있다"(Ain't supposed to go nowhere)(145)고 대답한다. 그것은 백인들이 오랫동안 흑인들을 공공 교통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이유를 명백히 밝혀주는 대목이다.

청소부로서 흑인차별의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기 전부터도 파일럿은 인종차별을 겪었는데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가 일구어 놓은 번창한 농장을 차지하려는 백인에 의해 아버지가 살해된 사건이다. 이처럼 파일럿은 백인사회로부터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긴 하지만 그녀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나 백인의 흑인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완전히 외면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또 다른 인종차별의 예는 파일럿의 딸 레바(Reba)와 관련되어 있다. 1943년 밀크맨과 기타가 파일럿이 집을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 그들은 레바가 시어즈 빌딩에 오십 번째로 들어온 사람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는 행사에 당첨되는 행운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기타가 "나도 그 행사는 알고 있지만 흑인이 경품을 탔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I remember that contest, but I don't remember hearing nothing 'bout no colored person winning it.)(46)라고 말한 것처럼 그 상은 레바 다음에 들어온 사람에게 주어진다. 이렇듯 흔히 있는 경품행사에서조차 흑인들은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흑인차별에 대한 암시에 덧붙여서 모리슨은 흑인에 대한 백인의 태도와 관련하여 1931년, 1896년, 그리고 1918년 세 개의 해를 제시한다. 1931년

은 그 해 일어났던 소설 속의 사건 때문에 이미 언급한 바가 있는데 이에 덧붙여 1931년은 또한 9명의 흑인이 기차 안에서 2명의 흑인 여성을 강간하였다는 죄목으로 기소되었던 스코트보로 사건(Scottsboro case)이 있었던 해다. 둘째로 1896년은 루스 데드의 아버지인 포스터(Dr. Foster)가 메인스 에번뉴로 이사를 온 해인데 그 해에는 미국 대법원이 플레시 대 퍼거슨 판결<sup>12)</sup>을 통해 인종 분리의 개념을 공고히 하고 그와 더불어 흑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1918년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해이다. 30만 명이나 되는 흑인들이 그 전쟁 기간동안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은 그들이 전쟁에서 돌아오면 백인들로부터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Walker 136) 하지만 그것은 백인들을 너무나 과대 평가한 것이다. 오히려 전쟁에서 백인 병사들이 돌아오자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 전쟁 중 군수 산업에 종사했던 흑인들은 해고당했다.

1896년부터 시행된 흑백분리법과 인종차별은 수많은 사람들의 투쟁과 희생으로 인해 많이 완화되었지만 지금까지도 교묘하게 흑인들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차별 대우를 받고 있으며 완전한 평등사회를 꿈꾸는 일은 요원한 듯 하다.

## 2. 흑인민권운동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흑인민권운동이라는 용어를 1950년대와 1960년대와 연관시켜 생각하고 있으나 이 민권운동의 목적인 인종평등을 위한 투쟁은 흑인들이 미국에서 차별의 대상이 되었던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었다. 1787년 리처드 알렌 (Richard Allen) 신부와 압살롬 존스(Absalom Jones)가 감리교 내에서

12) 백인과 흑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 플레시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백인 전용인 1등칸 기차에 승차하려는 것이 거부당했는데 플레시는 법원에 제소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루이지애나 법은 흑인들의 기타 승차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흑인 승객과 백인 승객을 분리하고 있으므로 흑인의 기본권 침해가 아니며, 따라서 루이지애나 주법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 장태한, 「흑인 그들은 누구인가」 (한국경제신문사, 2001)

의 인종차별에 항거하기 위해 필라델피아에 자유 아프리카회( Free African Society)를 조직하였다. 이 활동이 1950년대나 60년대의 활동만큼 언론에 알려지거나 강력한 지도자에 의해 조직된 것은 아니었지만 흑인들이 그들이 미국에 도착한 이래로 지속적으로 표출해 왔던 평등에 대한 열망과 요구를 드러내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1950년대와 60년대는 미국 흑인 민권운동이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가장 활발하고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낸 시기이다.

법과 관습으로 규정되어 온 흑백 분리와 인종차별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측면에서의 민권운동은 가장 큰 활약과 성과를 나타내었다. 우선 브라운 판결로 공립학교에서 흑백 통합을 이끌어 내었고 흑인들이 미국 사회에서 인종적 열등감을 극복하는데 큰 힘을 주었다. 그리고 잇달아 몽고메리의 버스 승차 거부와 흑인 대학생들이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나타내는 연좌농성, 자유 여행단(Freedom Rides) 및 워싱턴 행진<sup>13)</sup>은 사회개혁을 위한 대표적인 민권운동이었다. 정치적 측면에서의 민권운동은 참정권 획득을 위한 노력과 민권법안의 통과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미시시피 흑인들의 미시시피 자유민주당의 결성과 가장 포괄적인 1964년의 민권법<sup>14)</sup>은 미국사회에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인간 해방의 추구가 「솔로몬의 노래」의 필수적인 내용이다. 비록 이 소설이 언뜻 보기에 역사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리슨은 흑인역사와

---

13) 1963년 8월 28일 20만명 이상의 군중이 워싱턴 광장에 모여 민권법 통과를 촉구했다. 백인, 흑인은 물론 동양인, 인디언, 그리고 기타 모든 인종과 기독교인, 불교인, 이슬람교인 등 초인종적, 초교파적 대규모 집회였다. 이 집회에서 킹 목사가 '나에게는 꿈이 있다(I have a dream)'는 유명한 연설을 했다. ; 장태한, 「흑인 그들은 누구인가」(한국경제신문사, 2001)

14) 이 법은 공공장소, 고용, 노동조합에서의 인종차별을 금지하였고 인종차별을 고집하는 주에 대해서는 학교, 병원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하였다. 또 남부에서 흑인의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문자 해독 테스트를 금지함으로써 흑인의 투표율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 박상두 (1993), 미국 흑인들의 민권운동 - 1950-60년대를 중심으로 - 인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관련된 날짜, 인물, 사건, 정책 등에 대한 암시를 신중하게 삽입시켰다. 모리슨은 주요인물들이 태어난 날짜와 그들의 나이를 자주 언급하면서 소설 속에 흑인민권운동과 관련한 사건을 끼워 넣었다. 이러한 날짜들을 잘 살펴보면 1869년에 시작하여 1963년에 끝나는 소설 속의 사건에 관한 연대기가 그려질 것이다. 이 소설이 이렇게 광범위한 시간대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흑인민권운동을 폭넓게 정의하고 1950년대와 60년대에만 한정짓지 않는다. 역사적인 인물과 날짜, 사건들에 대한 암시가 이야기 전개상의 목적을 위해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소설 속의 인물들의 개인적인 투쟁과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들만을 연구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날짜인 1931년을 사용함으로써 모리슨은 독자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흑인들의 소동이 자꾸만 늘어나는 것에 대한 백인들의 불편한 심기를 보여주고자 했다. "만삭인 여자, 노래 부르는 여인, 벨벳 장미 꽃잎들을 줍고 있는 두 명의 어린 소녀, 그리고 병원 지붕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푸른 날개옷을 입은 한 남자로 어우러진 이상한 광경"(this strange spectacle of a woman in labor, a singer, two little girls picking up velvet rose petals, and an man wearing blue wings preparing to leap from the top of the hospital unfolds)을 보았을 때 병원에 근무하는 백인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이 된다.

평등을 위한 투쟁이 1931년 이전부터 시작하여 꾸준히 계속되다가 1960년대에 절정에 이르렀지만 그들이 살아오는 동안 일어났던 많은 중요한 사건들이 그들에게 떠올랐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면 41년 전인 1890년에 흑인 저널리스트 토마스 포춘(Thomas Fortune)이 시카고에 전국흑인연맹(National Afro-American League)을 조직하여 남부에서의 투표권을 요구하고 흑인들에게 린치를 가하는 단체들에게 대항하였으며 백인 학교와 흑인 학교 사이의 불평등한 예산 분배 문제와 남부의 추악하고 비도덕적인 교도소 체제 및 기차와 공공장소에서의 인종차별 정책에 대해 비판하였다.

21년 전인 1910년에는 듀 보이스(W.E.B DuBois)가 전국유색인종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 (NAACP))<sup>15)</sup>를 조직하였고 14년 전인 1917년에는 흑인들이 정부와의 계약에 따라 공장에 고용되었다는 이유로 백인들이 이스트 세인트 루이스에서 폭동을 주도한 것에 저항하기 위해 뉴욕에서 침묵 시가 행진을 하였다. 11년 전인 1920년에는 마커스 가비(Marcus Garvey)가 세계흑인개선협회(Universal Negro Improvement Association(UNIA))를 결성하여 흑인 민족주의를 알리고 흑인들에게 그들의 능력을 믿고 그들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민권을 획득하기 위한 이와 유사한 활동들이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

이렇게 흑인민권운동이 발전되어 온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자애병원의 백인 근무자들이 한 무리의 흑인들이 병원밖에 모여있는 것을 보고 놀라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They had been watching from the windows - at first with mild curiosity, then, as the crowd seemed to swell to the very walls of the hospital, they watched with apprehension. They wondered if one of those things that racial-uplift groups were always organizing was taking place. But when they saw neither placards nor speakers, they ventured outside into the cold.

대수롭지 않은 생각으로 창 밖을 내다보고 있던 병원 사람들은 흑인들이 병원 건물을 에워싸듯 모여들자 당황하기 시작했다. 인종 문제로 소요가 일어나면 대개 주위의 건물을 점거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모여든 흑인들이 확정

---

15) 이 단체는 흑인들의 민권확보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발족될 당시(1910년) 대부분의 주요 요직을 백인들이 자리 잡았고 오지 듀 보이스만이 흑인으로서 유일한 대변인격의 고위직을 맡았다. 다양한 법적 투쟁을 전개해 미국 남부에서 실시되었던 그랜드 파더 범조문이 1915년 철폐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으며 흑인들을 일정한 구역에서만 살게 한 루이빌 시 조례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1917년에 받아내기도 했다. ; 장태한, 「흑인 그들은 누구인가」 (한국경제신문사, 2001)

기나 플래카드 따위를 들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그들은 호기심에 이끌려 밖으로 나왔다.

명백히 백인들은 흑인들의 집회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마커스 가비가 주동했던 것과 같은 소요는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지만 반면에 안도감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백인들이 그러한 소동을 일으키는 단체에 대해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한 흑인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이런 우월감은 자애병원 간호사의 행동에서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녀는 나중에 밀크맨의 친구가 되는 기타의 할머니에게 기타를 응급실로 보내 경호원을 불러오라고 한다.

"You," she said, moving toward the stout woman. "Are these your children?"

The stout woman turned her head slowly, her eyebrows lifted at the carelessness of address.

"Ma'am?"

"Send one around back to the emergency office. Tell him to tell the guard to get over here quick. That boy can go."

.....

"Listen. Go around to the back of the hospital to the guard office. It will say 'Emergency Admissions' on the door. The guard will be there. Tell him to get over here-on the double. Move now. Move!"

“이것 봐요” 간호원이 건장한 여인에게 다가가며 물었다.

“이 아이들이 당신 아이들인가요?”

건장한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더니 치켜 뜬 눈을 깜박거린다.

“그래요. 왜요?”

“아이 하나를 응급실에 보내 빨리 수위를 불러와야 해요. 저 아이라면 할 수 있겠군요.”

.....

“잘 들어. 병원 뒤로 돌아가면 수위실이 있어. 문에 ‘응급접수’라고 쓰인 곳이다. 그 안에 수위가 있으니 빨리 이곳으로 오라고 해. 얼른! 어서 가, 어서.”

그 간호사는 기타와 그의 할머니에게 무례하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기타를 병원 앞쪽이 아니라 뒤쪽으로 보냈는데 그것은 흑인들을 무시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다.

다음 장면에서는 흑인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인 디바인(Divine) 신부에 대한 백인들의 태도를 알 수 있다.

The sight of Mr. Smith and his wide blue wings transfixed them for a few seconds, as did the woman's singing and the roses strewn about. Some of them thought briefly that this was probably some form of worship. Philadelphia, where father Divine reigned, wasn't all that far away.

푸른 날개를 펼치며 지붕에 올라서 있는 한 사나이, 낡아빠진 담요를 두른 여인의 힘찬 노래, 백설 위에 흩어진 붉은 꽃잎, 이 모든 광경은 눈이 휘둥그레진 병원 사람들을 그 자리에 묶어 놓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처음 그들 중 몇 사람은 무슨 종교 행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 필라델피아의 디바인 신부가 교구목사로 있는 필라델피아가 그리 먼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래 이름이 조지 베이커(George Baker)인 디바인은 1919년 뉴욕에서 평화 임무수행운동(Peace Mission Movement)라고 불리는 종교의식을 행하였다. 캐서린 엘번스(Catherine L. Albanese)의 책에 따르면 디바인 신부는 “신은 모든 사람의 내부에 존재한다고 확신했으며 동시에 영적인 완결성과 충분한 음식과 잠자리,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다”(had become convinced of the presence of God within each person and at the same time continued to reflect on the connections between spiritual wholeness and a life with sufficient food and shelter and a modicum of human dignity)<sup>16)</sup>고 하였다. 그의 추종자들은 그가 신이라고 믿었는데 종종 화려한 연회에 참석하였다.

집회와 관련하여 디바인 신부와 연관시키는 것은 백인들이 흑인들의 집회에 대해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모두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 미친 흑인 남자(스미스)와 벨벳 장미 꽃잎이 든 바구니를 들고 있는 두 흑인 소녀가 보여주는 기묘한 광경을 디바인과 연결시키는 것은 디바인과 그와 비슷한 인물들을 비웃는 백인들 나름대로의 방법인 것이다. 대부분의 백인들이 디바인을 정신 이상자로 취급하지만 그들은 또한 대규모의 흑인 추종자들을 움직이는 그의 능력을 인정한다. 그래서 병원 근무자들은 흑인 군중들이 모여있는 바깥으로 나가보기 전에 머뭇거렸던 것이다. 그리고 그 백인들은 스미스와 모여있는 사람들의 안전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단지 만일의 사태에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을 부른다.

멜리사 위커는 위에서 언급한 세 해 동안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들이 소설 속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소설 전반에 걸쳐 부분 부분 암시되어 있으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모리슨은 독자들에게 각각의 해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상기시키기 위해 1931년, 1896년, 1918년을 소개한 것

---

16) *America: Religion and Religions*, p.209

이다.

앞에서 제시한 예들이 백인들의 인종주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면 흑인민권운동과 관련한 또 다른 암시는 등장인물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개인적인 투쟁에 관한 것이다. 모리슨은 우선 에브라함 링컨(Abraham Lincoln)과 남북전쟁에서 중요한 활동을 한 인물들을 언급하는데 그것은 마콘이 자기 민족의 역사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음을 조명하기 위한 것이다. 마콘은 밀크맨에게 자신의 행복했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준다. 그는 아버지와 여동생 파일럿과 함께 농장에서 생활했는데 그 농장이름은 에브라함 링컨의 이름을 딴 링컨의 하늘(Lincoln's Heaven)이었다. 마콘은 그 농장에서 기르던 모든 동물들을 설명해 주는데 그 동물들의 이름이 모두 마콘의 아버지, 즉 밀크맨의 할아버지가 살았던 시대에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인물들의 이름을 딴 것이었다. 소의 이름은 율리시스 그랜트(Ulysses S. Grant)이고 말은 링컨 대통령(President Lincoln), 망아지는 메리 토드(Mary Todd), 그리고 돼지의 이름은 리 장군(General Lee)였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마콘은 소년시절에 가졌던 역사의식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링컨의 하늘 농장시절에 배웠던 가치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비록 그의 과거를 기억할 수 있고 과거 속의 역사적 인물을 기억하긴 하지만 진정으로 그러한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백인들이 그의 아버지에게 가한 폭력 때문에 그는 백인들에게 원한이 사무친다. 그는 부유해지고 아버지가 이룩하지 못한 것을 이룩함으로써 복수를 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는 백인들에게 아무 것도 증명해 보이지 못하고 백인사회의 가치관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점차 흑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파괴된다.

밀크맨과 기타가 각자 겪는 갈등 역시 모리슨이 소설 속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역사적인 암시와 깊은 관련이 있다. 첫 번째 암시는 루즈벨트 대통령(Franklin Roosevelt)과 연관되어 있다. 1945년 밀크맨이 14살이었을 때 그는 자기 다리 길이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다리가 소아마비

증상을 일으키고 있다고 믿고 있었으며, 이 사실 때문에 루즈벨트 대통령과 자신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 보기도 하였다. 친밀감을 생각한다면 밀크맨은 아버지보다 오히려 루즈벨트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있었다. 그는 아직도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그 힘을 존경했지만 다리의 이상을 알고 나 이후부터는 아버지와는 다른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밀크맨이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는 반면 기타는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 그는 루즈벨트가 흑인들에 대해 동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루즈벨트를 앨라배마의 어느 더러운 촌락에 데려다 놓고 독한 위스키와 담배와 트럼프와 바자를 주면 다른 흰둥이 놈들처럼 우리를 죽이는 걸 망설이지 않을 거야. 내가 말하려는 것은 흰둥이 놈들은 그럴만한 분위기나 조건이 되면 하나같이 그런 짓을 할 놈들이라는 거야.”(You could have taken him and his wheelchair and put him in a small dusty town in Alabama and given him some tobacco, a checkerboard, some whiskey, and a rope and he'd have joined a lynching party, too)(157)라고 말한다.

기타는 아버지가 백인이 경영하는 제재소에서 일하다 사고로 돌아가셨는데도 그 보상이라는 것이 고작 그들이 가족에게 40달러를 주는 것이 전부였다는 것에 대해 깊은 상처를 받아 백인 전체에 대해 냉담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복수심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기타는 흑인민권운동과 관련된 활동에 관여하게 되고 백인들이 흑인을 상대로 한 폭력적인 행동에 대한 보복 행위를 마다하지 않는다. 루즈벨트에 대해 불신하는 기타의 관점과 그를 이상화하는 밀크맨의 태도를 대비시키는 것은 밀크맨이 백인과 같은 부유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른 흑인들이 겪고 있는 인종차별에 무지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밀크맨과 기타가 논하는 또 다른 정치적인 인물은 케네디 대통령(President John Kennedy)이다. 밀크맨은 흑인을 돕는 백인의 예로 케네디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기타는 케네디가 흑인이 동등한 권리를 획득하는 것을 도우려는 모습

은 보였지만 정치적으로 이익이 있을 경우에만 그랬다면 케네디 역시 부자연스러운(unnatural) 백인의 한 사람일 뿐이라고 한다. 사실 하버드 시코프(Harvard Sitkoff)가 설명하듯이 케네디는 "흑인차별은 잘못된 것이며 자신은 흑인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지만 천천히 적당한 때를 기다려야한다"(believed Jim Crow to be wrong, They hoped to better the life of African-Americans, but slowly, and at the proper time)(96)고 말했던 인물이었다. 케네디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남부지역 유권자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래서 1961년의 프리덤 라이드 기간동안 발생했던 극단적인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분명한 행동을 취하는 것을 꺼려했다. (Sitkoff 96-97)

기타가 케네디의 정치적인 권모술수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작품 속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기타가 정치적 단체인 세븐 데이즈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 단체가 흑인 인권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민감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케네디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타가 케네디에 대해 불신하는 모습을 그리는 것은 기타는 자기 주변의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에 비해 밀크맨은 세상물정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타와 밀크맨이 이야기하는 세 번째 인물은 말콤 엑스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그의 이름을 언급한다. 1948년 강도죄로 3년간 감옥생활을 한 후 출소하여 이슬람교를 접하게 된 말콤 리틀(Malcolm Little)은 이슬람교의 열렬한 신자가 된다. 그리고 존 화이트(John White)가 그의 저서에서 설명한 것처럼 과거 노예시절의 상징물인 흑인 성을 버리고 대신에 엑스라는 성을 쓴다.<sup>17)</sup> 기타가 세븐 데이즈가 수행하는 활동들에 대해 설명할 때 밀크맨은 말콤 엑스처럼 기타도 기타 엑스로 성을 바꿔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지만 기타는 거부한다.

"You sound like that red-headed Negro named X. Why don't you join

---

17) *Black Leadership in America, 1895-1968, Black Muslim*, pp.104-05

him and call yourself Guitar X?"

"X, Bains - what difference does it make? I don't give a damn about names."

"You miss his point. His points is to let white people know you don't accept you slave name."

"I don't give a shit what white people know or even think. Besides, I do accept it. It's part of who I am. Guitar is my name. Bains is the slave master's name. And I'm all of that. Salve names don't bother me; but slave status does."

“네가 하는 말은 엑스라는 이름을 쓰는 빨간 머리 흑인이 하는 말과 비슷한 것 같아. 너도 그 사람처럼 기타 엑스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어때?”

“엑스나 베인즈나 뭐가 다르지? 난 이름에 의미 따윈 부여하지 않아.”

“넌 핵심을 모르는구나. 그는 백인들에게 노예시절의 이름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랬어.”

“난 흰둥이 놈들이 알든 모르든 무슨 생각을 하건 관심 없어. 그리고 난 내 이름을 인정해. 그건 내 존재의 일부분이니까. 기타는 내 이름이야. 베인즈는 백인 주인의 이름이었고. 날 괴롭히는 건 노예시절의 이름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까지도 우리가 노예상태로 남아있다는 사실이지.”

기타의 백인에 대한 감정은 상당히 왜곡되어 있지만 그는 자기 민족의 과거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는 자기 성 속에 노예시절의 흔적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말콤 엑스는 자기 성을 버리는 것에 비해 기타는 노예로서의 그의 과거를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있다. 기타와 밀크맨이 이와 같은 대화를 하고 있었던 때는 1963년 즉 노예 해방령(The Emancipation Proclamation)이 선포된 지 100년이 되던 해이다. 하지만 아직도 흑인은 참다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타가 노예상태임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노예시절의 이름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은 그로서는 당연한 일인 것이

다.

에밋 킬의 살인사건<sup>18)</sup>과 밀크맨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한 순간, 즉 그의 아버지에게 도전하는 사건이 그 때를 같이 한다. 그 때에 그는 자기 어머니와 외할아버지와의 왜곡된 관계도 알게 되고 그가 밀크맨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이유도 떠올리게 된다. 마콘이 저녁식사 도중 루스를 때리자 22살이었던 밀크맨은 달려들어 어머니를 보호하고 아버지를 때리게 된다. 한바탕 싸움이 있는 후 마콘은 밀크맨에게 그와 루스와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그 원인이 루스와 그녀의 아버지가 근친상간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sup>19)</sup> 밀크맨은 마음이 너무나 혼란스러워 상담을 하려고 기타를 찾아 밖으로 나간다. 그가 사우드 사이드를 향하여 거리를 걸어가고 있을 때 "거리는 많은 사람들로 붐볐지만 모두가 자기와는 반대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the street was even more crowded with people, all going in the direction he was coming from)(78)을 발견한다.

제인 캠벨은 주장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밀크맨으로서의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일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캠벨은 에밋 킬 살인사건과 관련한 소식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고 사람들은 그것을 듣기 위해 중앙으로 모여들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더욱이 밀크맨은 너무나 자기 생각에만 몰두해 있기 때문에 그를 제외한 사람들이 도로 맞은

---

18) 1955년 8월 미시시피 주의 머니시에서 14살 흑인 소년 에밋 킬로 밝혀진 시체가 동네 저수지에서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시카고에서 태어나 자라 남부의 흑백 차별 관습을 전혀 몰라 백인 여자아이에게 농담조로 한 마디 건넨 말 때문에 KKK단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된다. 에밋 킬을 죽인 두 명의 백인은 무죄평결을 받았고, 나중에 언론을 통해 자신들이 어떻게 킬을 죽였는가를 자랑삼아 이야기한다. 이 에밋 킬 사건은 흑인 사회에 엄청난 실망과 분노를 자아내게 했으며, 민권운동의 전초로서 흑인들의 투쟁의식을 깨우쳐주는 계기가 되었다. ; 장태한, 「흑인 그들은 누구인가」(한국경제신문사, 2001)

19) 존스(Bessie Jones)는 루스와 그녀의 아버지 사이에 근친상간적인 관계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단지 자신이 루스를 구박하는 구실로 사용할 뿐이며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마콘은 루스를 죽였을 것이라고 말한다. ; Bessie Jones, *The World of Toni Morrison* (1985)

편을 걸어서 통합을 위한 장소로 가는 것에 비해 그가 반대방향으로 가는 것은 매우 적절한 배치인 것 같다.

밀크맨이 토미(Tommy)의 이발소에 도착했을 때 기타는 레일로드 토미(Railroad Tommy), হাসপিটল 토미(Hospital Tommy), 포터(Porter), 프레디(Freddie) 등과 방금 라디오에서 들은 살인사건 소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털의 사건이 언론의 이목을 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논쟁하며 백인들을 비난하고 있었다. 이 장면은 1950년대에 흑인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살인자가 잡히기는 할테지만 “살인자를 잡으면 그를 위해 큰 파티를 열어주고 메달도 줄 거야”(They'll catch 'em, all right, and give 'em a big party and a medal)(82)라고 포터가 말한 것처럼 적절한 처벌에 대해서는 아주 회의적이었다.

밀크맨은 기타가 자기에게 관심을 보여줄 때까지 참고 기다렸다. 털의 사건과 흑인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 등에 대해 대화가 오고가는 동안 밀크맨은 내내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동료 흑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이었다. 밀크맨이 기타에게 자기가 아버지에게 대들었다고 말하자 기타는 그를 위로하면서 “인생이라는 어려운 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이따금 그런 이상한 소리나 행동을 해야 하는 거야. 다른 그런 것에 다치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 이해하려고 해 봐. 만약 그게 잘 안 되거든 잊어버려. 자신을 강인한 인간으로 키워 가.”(88)라고 말한다. 그리고 기타가 백인이 털을 죽인 사건으로 화제를 돌리자 밀크맨은 말을 자른다.

“He was crazy.”

“No, Not crazy. Young, but not crazy.”

“Who cares if he fucks a white girl? Anybody can do that. What’s he bragging for? Who cares”

“Crackers care.”

"Then they're crazier'n he is."

"Of course. But they're alive and crazy."

"Yeah, well, fuck Till. I'm the one in trouble." (88)

"그 자는 미쳤어."

"아냐, 미친 게 아니고 어리고 약했을 뿐이야."

"그 자가 흰둥이 여자와 그 짓을 한 게 뭐가 잘못이지? 그 짓은 아무나 하는 건데."

"흰둥이 놈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렇다면 그 놈들은 더 미친놈들이지."

"물론 그래, 하지만 그 자들은 엄연하게 살아 있잖아. 하지만 틸은 죽었어."

"죽었건 말건 나와 상관없어. 아직 문제가 남은 건 나 자신이야."

밀크맨은 즉시 마지막 말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그는 자신의 문제 외에는 어느 누구의 고통에도 관심이 없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의 경솔한 말은 그가 틸이 백인여자와 성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휘파람 한 번 불었다는 이유로 살해당했다는 것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이 일은 밀크맨이 같은 종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흑인민권 운동에 대해서도 냉담함을 잘 보여준다.

비록 밀크맨이 틸처럼 백인들로부터 육체적인 공격을 당하지 않고 아버지의 부로 인해 별 어려운 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는 백인 이데올로기의 정신적인 희생자이다. 밀크맨을 왜곡시키고 있는 백인중심 가치관으로 인해 그는 파일럿이 감추어 두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금을 찾기 위해 떠난다. 파브르 (Genevieve Fabre)는 밀크맨이 자유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면에 있어서 그가 남북전쟁 때의 노예들과 같다고 지적한다. 명백히 그는 가진 재산 때문에 백인에게 살해당한 할아버지나 부유하기는 하나 정신적으로는 감금상

태에 있는 아버지의 예를 통해 별 교훈을 얻지 못한 것 같다. 바바라 크리스천(Barbara Christian)이 밀크맨의 자아탐색 여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Milkman's search for gold, the profit from the land of his origins, which ironically he wants in order to free himself from his family, underscor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old traditions and the new. But the land reaffirms itself, for in his search for the gold, Milkman discovers a greater treasures, his real name and his roots in the land, which enable him to fly beyond it to a greater truth.<sup>20)</sup>

밀크맨이 금을 찾아 떠나는 것, 그의 고향 땅에서 얻는 이익 등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의 가족으로부터 자유로와 지기 위해서이며, 과거의 유산과 새로운 것과의 차이를 과소 평가한다. 하지만 땅은 그것을 재확인시켜주었으며 금을 찾아다니는 동안 밀크맨은 더 큰 보물, 즉 그의 실제 이름과 그의 뿌리를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그로 하여금 더 위대한 진실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다.

대부분의 희생자가 그러하듯 밀크맨도 백인중심 이데올로기로부터 스스로 자유로워지느냐 아니면 희생자로 남느냐를 선택하는 기로에 서게 된다. 그가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내면화시킨 백인중심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했다면 백인의 가치관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파멸에 이른 헤거와 같은 삶을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백인중심 이데올로기의 희생양이 되지 않고 자유를 선택한다.

모리슨은 털의 살인사건의 상황을 밀크맨이 남부로 여행을 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모티프로 사용한다. 털이 살해당한 그 날에 밀크맨은 자기 별명

---

20) *Community and Nature: The Novel of Toni Morrison*, p51

(Milkman)의 유래를 인식하게 되고 자기의 진짜 이름(Macon Dead III)을 찾으러 갈 것을 결심하게 된다. 털이 시카고에서 미시건으로 떠나기 전에 그의 어머니는 털이 남부의 인종차별적 태도에 익숙하지 않은 것을 걱정하여 백인들과 부딪히지 않는 방법에 대해 수 차례 이야기하며 몸조심할 것을 신신당부한다. 밀크맨이 남부로 떠날 때도 털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번에는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 계급의 문제이다. 밀크맨이 덴빌에서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지만 살리머에서는 그곳에 어울리지 않는 외관과 오만한 태도 때문에 사람들에게 적개심을 산다. 털이 백인여자에게 휘파람을 불었을 때 단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백인의 공격을 받은 것처럼 밀크맨도 살리머에서 그들과 다른 사회, 경제적 지위 때문에 곤경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계급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밀크맨은 살리머 사람들과 같은 종족이므로 결국에는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아 그들이 속한 공동체로 흡수된다. 더구나 살리머 사람들은 밀크맨이 자아 정체성을 찾는 방법도 가르쳐 주게 된다. 반면에 털은 그를 죽인 백인들이 그를 단지 검둥이로 밖에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치있는 존재임을 증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된다.

모리슨은 밀크맨이 자기 가족의 역사가 녹아있는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생활하고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을 그리기 위해 역사적인 사건, 인물, 정책들을 교묘하게 배치시켜 놓았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백인 인종주의자들의 흑인 차별과, 마콘, 코린시안스, 레바, 밀크맨, 기타 등의 개인적인 투쟁의 모습을 그려 넣었다.

### Ⅲ. 자아파멸로 인한 정체성의 상실

#### 1. 지배이데올로기의 내면화

「솔로몬의 노래」에서 백인중심 이데올로기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정체성을 상실한 인물의 대표적인 인물은 밀크맨의 아버지 마콘과 파일럿의 손녀 헤거이다.

마콘 데드는 1930년대에 미국사회를 지배하던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그대로 수용한 인물로 물질적인 부만이 그를 백인과 동등한 위치에 있게 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재산을 축적하는데 혈안이 되어있어 가난한 세입자들에게 몰인정한 집주인으로, 집세가 없어 못내는 사람들은 매몰차게 내쫓아 버린다. 이러한 그의 삶의 방식은 억압자인 백인의 지배 방식을 택하여 동족을 다시 억압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마콘은 아들 밀크맨에게 "소유해라, 그러면 네가 소유한 것들이 다른 것들도 소유하게 만들어 준다. 그리고 네 자신을 소유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Own things. And let the thing you own own other things. Then you'll own yourself and other people, too)(55)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그대로 전수한다. 또한 "돈이 곧 자유이며 유일하고 진정한 자유는 돈에 있다."(Money is freedom, and The only real freedom is there.)(179)고 충고한다.

이러한 가치관을 가진 아버지 밑에서 자란 밀크맨이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 것은 당연하다. 그는 12년 동안 연인으로 지내온 헤거와 이별할 때도 약간의 돈을 주면서 절교를 선언하고 황금을 찾아 남부로 여행을 떠나게 되는 계기도 복잡한 주변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느껴서이다.

모리슨은 미국 사회의 흑인들에게 강요되는 백인중심 이데올로기의 대표적인 예로 핵가족 이데올로기를 지적한다. 미국 사회는 인종과 계급 차이를 무시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 핵가족 모델을 자연스러운 규범으로 제시해 왔다. 그러나 사실 가부장적 핵가족은 주로 백인 중산층에게나 부합되는 가족모델이다. 그런데 해방이 되면서 초기 흑인 사회학자들이 백인의 가치에 동화될 목적으로 흑인에게 가부장적 핵가족 모델을 확립할 것을 적극 권장하였고, 그 결과 중산층에 편입된 흑인 가족 대부분이 핵가족 형태를 취하고 있다.

마콘 데드의 가정 또한 핵가족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 가족 속에서 마콘은 아내나 자식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가부장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는 신분 상승의 수단으로 부와 명성을 가지고 흑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의사(Dr. Foster)의 딸, 루스와 결혼하는데 사랑 없이 한 결혼이라서 결혼한 후에는 재산을 취하고 의사가 죽은 뒤에는 아내에게 전혀 사랑을 주지 않고 무시하여 아내가 불행한 삶을 살게 만든다. 또한 가부장적 권위로 두 딸을 자기의 주장을 펼치거나 인생을 즐기지 못하고 황폐한 삶을 살아가게 하고 밀크맨이 의대에 진학해서 의사가 되기를 바라는 루스의 소망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대학에 진학시키는 대신 자신의 사업을 배우게 한다. 이렇듯 그는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억압하는 모습을 보인다.

마콘의 이러한 사고방식 역시 밀크맨에게도 영향을 미쳐 그도 역시 누나들은 자기가 심심할 때 놀아주고 배고플 때 음식을 만들어 주는 존재 이상으로 대접하지 않고 그들에게 전혀 관심과 애정이 없어 누나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거나 그녀들의 고민이 무엇인지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또한 밀크맨은 12년 넘게 육체관계를 맺어온 헤거에게도 애정이 식어서 매몰차게 절교를 선언한다. 누나들을 자기가 필요할 때 시중들어 주는 하녀쯤으로 생각하고 헤거를 단순한 육구충족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의 태도는 분명 이기적이며 가부장적 사고의 소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백인중심 이데올로기의 또 다른 예로는 이상적인 여성다움에 대한 이데올로

기를 들 수 있다. 이것은 ‘육체적인 미’, ‘여성적인 역할’ 등을 포함한다. 이 개념은 여성을 남성의 사랑과 돈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또 남성의 시선을 만족시켜주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가부장제 사회의 산물이다. 이상적인 여성의 필수조건으로 여겨지는 미의 개념은 흑인의 신체적인 특성과는 무관한 백인중심 개념이다. 즉 흰 피부, 푸른 눈, 노란 머리만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미에 대한 평가기준이다.

헤거는 밀크맨의 마음이 변한 것이 자기의 흑인으로서의 외모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백인의 외모를 추구하며 서슴없이 옷이며 화장품을 사들이는 행동을 보인다.<sup>21)</sup> 어느 날 헤거가 화장품과 옷이 가득 담겨진 쇼핑가방을 들고 백화점을 나서자 비가 내린다. 스며든 빗물에 종이가방이 뜯어져서 물건들이 길 위로 쏟아지자 헤거는 세찬 비를 맞으며 길바닥에 널려 있는 물건들을 주워 모은다. “젖어서 찢어진 스타킹, 얼룩진 하얀 치마, 끈적끈적하게 덩어리진 얼굴 분, 줄이 번진 루즈, 그리고 물기 젖어 바짝 달라붙은 머리모양(the wet ripped hose, the solid white dress, the sticky, lumpy face powder, the streaked rouge, and the wild wet shoals of hair)(340)을 한 채 집에 돌아온 헤거는 독감에 걸린다. 그녀는 병석에 누워서도 밀크맨이 “곱슬머리의 금발을 좋아해, 나의 머리 카락은 좋아하지 않아.”(Curly, wavy, silky hair. He don’t like mine.)(341)라고 반복하여 중얼거린다. 그녀는 밀크맨이 “레몬 색깔의 피부... 푸른 눈... 날씬한 코”(lemon-colored skin... grey-blue eyes...thin nose)(341)를 좋아하며 자기처럼 검은 피부에 낮은 코를 가진 얼굴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절규하듯 외친다. 이 독감으로 결국 그녀는 죽게 된다. 백인의 미를 추구하는 가치관을 가진 체 정체성을 찾지 못한 헤거는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해 파멸을 자초하는 비련의 인

21) 헤거의 이 행동은 소비 자본주의 사회의 속성과 연결시켜 이해할 수 있다. 소비 사회 이데올로기는 여러 계층과 인종이 동일한 제품을 소유함으로써 사회적인 차이와 서열을 완화시켜 평등해 질 수 있다고 믿게 만든다. 다시 말하면 소비 자본주의 체제는 백인이나 중산층이 아닌 여성도 약간의 돈으로 백인 중산층 여성의 이미지, 즉 상품을 살 수만 있다면 모두가 백인 중산층 여성이 될 수 있으리라는 환상을 심어준다 ; 이승은 「토니 모리슨」 (평민사, 1999), p. 127

물로 끝을 맺게 되는 것이다.

모리슨은 밀크맨이 자아 정체성 확립을 성공적으로 이룬 것을 헤거가 자아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과 의도적으로 병치시키는데 이러한 구성은 밀크맨이 헤거의 광기와 죽음에 부분적인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 2. 과격한 흑인민족주의

솔로몬의 노래의 두 중심인물인 밀크맨과 기타<sup>22)</sup>에게 있어서 1950년대와 60년대의 흑인민권운동기간은 그들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시기였다. 이 기간동안 형제보다도 더 가깝게 지낸 두 청년은 그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경험한다. 즉 기타는 세븐 데이즈(Seven Days)<sup>23)</sup>라고 불리워지는 비밀 결사조직에 가담하고 밀크맨은 덴빌과 살리머로 여행을 떠나게 된다.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 시기를 표현하기 위해 모리슨은 사건과 상황을 주의 깊게 배치한다. 1983년 닐 맥케이(Nellie Y. McKay)와의 인터뷰에서 이 주제와 관련하여 말한 바 있다.

There is something more interesting at stake than a clear resolution in a novel. I'm interested in survival - who survive and who does not, and why - and I would like to chart a course that suggests where the dangers are and where the safety might be. I do not want to bow out with easy answers to complex questions. It's the complexity of how people behave under duress that is of interest to me - the qualities they show at the end

---

22) 기타는 역동적인(dynamic) 흑인 남성으로 그려지는데 역동적이라는 것은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다양한 변화를 겪는다는 것이다. 이런 부류의 인물들은 어떤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고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Jackie Thomas, *Black Male Character Types in Four Works by Alice Walker and Toni Morrison* (Indiana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0)

23) A secret group of black men who avenge the deaths of innocent blacks in a unique way. Ron David, *Toni Morrison Explained*, p76

of an event when their backs are up against the wall (420)

소설 속에는 명백한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 더 흥미로운 문제가 있다. 나는 생존의 문제에 관심이 많다, 즉 누가 살아남고 누가 파멸하고 왜 그렇게 되는가에 관심을 가진다. 나는 어디에 위험이 있고 어디로 가면 안전한가를 나타내주는 경로를 표시해 두고 싶다. 나는 복잡한 문제에 대해 아주 쉬운 답변을 하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지는 않다. 나는 복잡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지켜보는 것이 흥미롭다.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를 말이다.

밀크맨과 기타 사이의 긴장감은 기타가 밀크맨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단체인 세븐 데이즈의 사상에 몰두하기 시작하던 때에 생겨나서 밀크맨이 그의 가족과 흑인 역사를 탐구하는 여행을 통해 흑인 정체성을 찾아감으로써 사고의 변화를 겪는다는 것을 기타가 인식하지 못하는 때에 절정에 이르게 된다. 비록 기타의 행동이 밀크맨보다 흑인민권운동과 좀더 연관이 있어 보이지만 모리슨은 민권을 얻기 위한 투쟁 속에서 흑인들이 가질 수 있는 여러 대안들 중에서 두 가지를 탐구하기 위해 기타와 밀크맨을 그렸는데 그것은 난폭한 복수와 자아인식을 통한 초월로 대비된다. 밀크맨과 기타의 최종 경험의 결과는 미국 내에서 진정한 흑인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어떤 선택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sup>24)</sup>

기타를 세븐 데이즈에 관련시키는 것은 모리슨에게 있어서 폭력에는 폭력으로 대항하는 흑인들을 나타내는 손쉬운 방법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이 설정은 세븐 데이즈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므로 그녀가 임의로 지어낸 것은 아니다. 랄프 스토리(Ralph Story)는 이 소설 속의 세븐 데이즈를 기록이 남아있

---

24) 밀크맨과 기타는 서로가 서로를 알아 볼 수 없는 대항적인 인물이 된다. 밀크맨이 자아의 정체성 발견과 문화적 정체성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반하여 기타는 같은 길을 정신적 해체와 문화적 소외로 나아간다. ; 박성환, 과거의 현존을 통한 흑인 정체성의 확립: 토니 모리슨의 *Song of Solomon*, 외대어문논집 제 13호, p.7

지는 않지만 19세기의 흑인 비밀 조직 즉 1844년 모스 디슨(Moses Dickson)에 의해 결성되어 흑인들이 백인 주인들에게 맞서 격렬히 투쟁함으로써 노예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 자유의 기사단(Knights of Liberty)이라고 불리는 조직과 연관시킨다.<sup>25)</sup> 덧붙여서 펄타도는 세븐 데이즈를 1920년 인종차별을 벗어나고자 북부로 이주해 왔지만 여전히 차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흑인들에 의해 결정된 호전적인 단체와 연결시킨다.<sup>26)</sup> 사실상 소설 속에서 세븐 데이즈는 1차 대전에서 퇴역한 흑인 병사들이 그들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조직되었다.

몇몇 학자들은 세븐 데이즈를 초기의 비밀 결사조직과 연관시키는 것과 더불어 기타와 세븐 데이즈를 말콤 엑스와 이슬람 단체(Nation of Islam)<sup>27)</sup>와 관련을 짓는다. 멜리사 위커는 밀크맨이 기타에게 그의 이름을 기타 엑스라고 바꾸라고 제안하는 대화를 인용하면서 이러한 연관 관계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Six years older than Milkman, Guitar would have been born around 1925, the year Malcolm Little was born. Both grew up in Michigan and had father who died violently-by having their bodies cut in half or almost in half - and both were separated from their mothers. Guitar was raised by his grandmother, Malcolm was placed in a forest home when his mother had a nervous breakdown. At about the time Malcolm X was released from prison and moved Detroit, where he very soon become a leader in the Muslim movement, Guitar embraced vengeance as the appropriate response to racial injustice.(142-43)

25) "An Excursion into the Black World: The 'Seven Days in Toni Morrison's *Song of Solomon*, p.152

26) *Historical Dimensions in Toni Morrison's Song of Solomon*, p.226

27) 젊은 흑인들은 킹 목사의 예언자적, 비폭력, 무저항 운동은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당장 자유와 평등을 요구한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흑인 사회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준 운동이 흑인 이슬람 운동이다.

말콤보다 여섯 살이 많은 기타는 1925년 쯤에 태어났는데 그 해는 말콤 리틀이 태어난 해이다. 두 사람 모두 미시건에서 자랐고 아버지가 잔인하게 죽었고 어머니와 떨어져서 살았다. 기타는 할머니 밑에서 컸고 말콤은 그의 어머니가 정신이상이었다고 숲에 버려졌다. 말콤이 감옥에서 나와 디트로이트로 가서 이슬람 운동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쯤에 기타는 복수심에 불타 인종차별에 맞서 보복행동을 한다.

또한 기타는 이슬람 단체의 생활방식을 실천하여 담배와 술을 끊고 흑인 회교도들이 주장하는 반 페미니즘 사상<sup>28)</sup>을 받아들인다. 그는 흑인 여자들이 흑인 남자들을 소유하려는 태도를 보이는데 대해 불만을 가지면서도 그가 흑인 여자에게 가해진 폭력에 대해 복수한 것에 대해 "그녀는 나의 것"(Because she's mine)(222-23)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복수를 정당화시킨다. 기타가 말콤 엑스가 자신의 이름을 바꾼 것에 대해 무관심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위커는 기타가 말콤 엑스의 복제판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인물로 본다.

기타가 말콤 엑스 유형이 인물이든 아니든 간에 세븐 데이즈의 이념은 말콤과 말콤이 존경했던 인물인 마커스 가비의 사상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세븐 데이즈 단원들은 흑인 민족주의자가 아니라는 점인데 그들은 현재 흑인의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기보다 지금 그대로의 그들이 있는 상태에서 흑인의 평등한 권리를 요구했다. 반면에 가비와 말콤은 "검은 것은 선이고 흰 것은 악이다"(black was good, and white was evil)

---

28)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성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열등한 존재로 보고 있다. 또한 그는 여성의 기능을 단지 아이를 낳는 재생산의 도구로 볼뿐만 아니라 재생산의 과정에서 남성보다 훨씬 더 열등하고 하찮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는 여성은 단지 아이를 낳고 키우며 집안 일만 하는데 적합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의 탁월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적인 능력이 없어서 국가의 다양한 공사에 참여할 수도 없다고 한다 ; 아리스토텔레스의 반페미니즘, 「인문학연구」, 제 4집, (한국의국어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9)

(White 80)라고 믿는 급진적인 본질주의자들이었다. 1964년에 말콤이 흑인 민권을 위한 노력에 백인들이 도와줄 것을 호소했으나 그는 모든 백인들을 인종차별주의자로 생각하고 있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타와 밀크맨이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엘리노 루즈벨트(Eleanor Roosevelt), 그리고 케네디(John. F. Kennedy)에 대해 토론할 때 기타는 “ 백인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인종적으로 이상하기 때문에 그들 자신을 품위 있고 자연스럽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에는 부작용이 따른다. 그들이 가진 이 병은 몸 속 깊이 스며들어 있어 치유하기가 어렵다”(white people are unnatural. As a race they are unnatural. It's just depravity that they try to make glorious, natural. But it ain't. The disease they have is in their blood, in the structure of their chromosomes)(156-57)라고 말한다. 기타는 또한 모든 백인들은 특별한 상황에서 흑인들에게 폭행을 하는데 참여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흑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백인의 비열함과 흑인의 도덕적 우월성을 강조했다.

가비와 말콤은 중산층 흑인들보다 노동자층 흑인들을 포섭하였다. 명백히 세븐 데이즈의 모든 단원들은 노동자 계층이었고 기타는 밀크맨에게 끊임없이 그들이 친구 사이기는 하지만 밀크맨은 사회, 경제적으로 다른 계급에 속해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는 밀크맨에게 “너는 고상한 친구들을 가지고 있고 Honore 섬으로 놀러 갈 수도 있으며 쓸데없는 일에 신경을 쓸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다”(You got your high-tone friends and your picnics on Honore Island and you can afford to spent fifty percent of your brainpower thinking about a piece of ass)(102-03) 고 말한다. 그에 비해 기타는 저임금을 받고 생산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가 밀크맨과 처음 만나게 된 것은 밀린 집세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콘이 그들 가족을 쫓아내는 과정에서였다.

물론 세븐 데이즈와 말콤 엑스 사이의 가장 유사한 점은 불의에 맞서 싸우는 방법으로 복수를 하는 것인데 이 사상은 말콤이 1963년 이슬람 단체와 결

별한 후에도 계속해서 주장한 내용이다. 1963년 사회학자 케네드 클락(Kenneth Clark)과의 대담에서 말콤은 마틴 루터 킹의 비폭력 사상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다.

Any Negro who teaches other Negroes to turn the other cheek is disarming that Negro ... of his God-given right ... his moral right ... his natural right ... his intelligent right to defend himself. Everything in nature can defend itself except the American Negro. And men like King-their job is to go among Negroes and teach Negroes, " Don't fight back. " He doesn't tell them, " Don't fight each other." " Don't fight the white man" is what he's saying ... because the followers of Martin Luther King will cut each other from head to foot, but they will not do anything to defend themselves against the attacks of the white man. ( qtd. in White 108)

어떤 흑인이든 다른 흑인들에게 뺨을 맞았을 때 다른 쪽 뺨을 내밀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그 흑인에게서 그에게 자신을 보호하도록 신이 주신 권리, 도덕적 권리, 천부적인 권리를 빼앗는 것과 같다. 미국의 흑인 외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줄 안다. 킹과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란 흑인들 사이에 가서 그들에게 “맞받아 싸우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는 “서로 싸우지 말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가 하는 말은 “백인과 싸우지 말라”이다. 마틴 루터 킹의 추종자들은 서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난도질할 지언정 백인들의 공격에 대항해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비록 「솔로몬의 노래」에는 마틴 루터 킹과 그의 철학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기타와 세븐 데이즈는 킹의 인류애 대신 ‘눈에는 눈’ (eye for an eye) 식의 접근을 채택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독자들은 세븐 데이즈에 대한 정보를 설명과 밀크맨이 생각하는 부분을 통

해서 얻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정보는 밀크맨과 기타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주로 얻게 되는데 세븐 데이즈는 그들이 정의라고 칭하는 폭력에 근거하고 있는 단체이다. 이런 단체의 영향을 받은 기타는 점점 자기의 임무에 집착하고 친구인 밀크맨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그 임무를 기꺼이 수행하려고 한다.

세븐 데이즈에 대한 밀크맨과 기타 사이의 대화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1963년에 이루어진다. 이전에 밀크맨은 기타가 바버샵 토미(Barbershop Tommy), 엠파이어 스테이트(Empire State), 그리고 이발소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들과 연관된 이야기를 자기에게 숨기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다.

밀크맨은 두 명의 백인 소년과 4명의 백인 남자가 1950년대 초에 목이 매어 죽은 사건에 대해 기억해낸다. 이발소에 모인 사람들은 이 살인사건을 몇 차례나 수용소를 탈출하여 도끼로 사람들을 절단하여 죽인 일이 있는 정신이상자 위니 루스 주드(Winnie Ruth Judd)의 짓이라고 돌리는데 그것은 세븐 데이즈의 책임을 덮기 위한 구실로 그녀를 이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밀크맨은 이러한 살인이 한 사람의 흑인에 의해 행해졌다는 것에 대해 의심을 품고 누군가는 그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밀크맨이 기타에게 그 사건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처음에는 얼버무리다가 다음에는 참견하지 말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밀크맨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려고 했다. 하지만 밀크맨은 나중에 프레디를 통해서 기타가 세븐 데이즈 클럽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밀크맨은 기타가 세븐 데이즈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안 것은 기타와의 대화를 통해서이다. 여전히 자아 소모적인 일에 몰두해 있던 밀크맨은 기타를 자기 곁으로 불러들여 그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물어보기 위해 버림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밀크맨을 죽이려고 시도하는 헤거의 이야기를 슬쩍 꺼낸다. 하지만 이 시점에도 기타는 그의 믿을만한 친구라고 항상 말해왔던 밀크맨을 의심한다. 기타가 세븐 데이즈 클럽에 대해 말하기를 주저하는 것을 보고 밀크맨이 “너는 나를 믿지 않는구나(You don't think I can be

trusted)”라고 말하자 기타는 “네가 믿을만한 친구인지 알 수 없어”(I don’t know if you can or not)(153)라고 대답한다.<sup>29)</sup> 그러나 마침내 기타는 밀크맨에게 세븐 데이즈의 임무에 대해 이야기한다.

There is a society. It’s made up of a few men who are willing to take some risk. They don’t initiate anything ; they don’t even choose. They are as indifferent as rain. But when a Negro child, Negro woman, or Negro man is killed by whites and nothing is done about it by their law and their court, this society selects a similar manner if they can. If the Negro was hanged, they hang ; if a Negro was burnt, they burn : raped and murdered, they rape and murder. If they can. If they can’t do it precisely, they do it any way they can, but they do it. They call themselves the Seven Days.

한 조직이 있어. 그 단체는 기꺼이 위협을 감수하려는 몇 명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 그들은 무언가를 시작하지도 않고 심지어 선택도 하지 않아. 그들은 비처럼 무심하지. 하지만 흑인 아이나, 여자, 남자가 백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법과 법원에 의해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할 때 이 조직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적절한 보복방법을 선택하지. 만약 흑인이 목매달려 죽었다면 그들도 교수형을 선택해. 만일 불에 타서 죽었다면 그들도 불태워 죽이지. 강간당한 후 살해되었다면 그들도 강간하고 나서 죽여. 가능하다면 말이야. 만약 똑같은 방법으로 보복할 수 없다면 그들이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택하긴 하지만 보복은 반드시 하고 말지. 그들은 스스로를 세븐 데이즈라고 부른다.

---

29) 기타의 과거와 흑인이 처한 현실에 대한 인식과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몰두는 처음에 그를 용감하고 책임감 있는 이미지로 부각시켜 밀크맨에게 호소력을 갖는다. 그러나 나중에는 복수의 논리가 지나친 외골수로 빠지면서 통제력을 상실하여 친구와 적을 구별하지 못하게 된다. ; Debora Guth, *A Blessing and Burden: The Relation to the Past in Sula, Song of Solomon, and Beloved* (1993), p580

이처럼 세븐 데이즈 단체의 조직배경이나 목적을 말하기 전에 기타는 수학적 균형 유지를 위해 언급한 적이 있다. 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니 해야 할 일이란 그놈들과 균형을 이루는 것밖에 없어, 그 놈들이 다섯을 이룰 때 우리는 일곱을 이루어야 하는 거야”라고 말한다. 이 말은 만일 백인들이 개개인을 죽임으로써 한 세대를 파괴하면 흑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로서 세븐 데이즈의 활동을 정당화시킨다. 이런 종류의 경직된 사고방식은 억압자의 규칙에 적합한 것으로 기타와 다른 세븐 데이즈 단원들을 그들이 전복시키고자 하는 바로 그 체제 속으로 가두어 버리는 결과를 낳는다.<sup>30)</sup>

이와 같은 오류는 작품 속에서 기타의 주장하는 말속에서 여러 번 발견되는데 모리슨은 이런 논리의 부족을 일깨우기 위해 중요한 질문을 하는 인물로 밀크맨을 배치한다. 우선 세븐 데이즈가 흑인에 대한 폭력에 그들이 대처하는 방안이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어떻게 그들이 대응하는 사건에 특별한 관련도 책임도 없는 백인을 부작위로 처벌하는 것이 어떻게 정당한 것이냐고 말하면서 밀크맨은 다음과 같이 묻는다. “왜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지? 그 일을 저지른 바로 그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말이야.”(Why kill innocent people? Why not just those who did it?)(155) 기타는 모든 백인들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종차별적 본질주의에 입각해서 대답한다. “너 사람들을 왜 죽이냐고 물었니?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야. 그냥 백인을 죽이는 것이지”(You’re going to kill people? Not people. White people”(155) 라고 기타는 대답한다.

기타가 깨닫고 있지는 못 하지만 그와 세븐 데이즈는 백인이 흑인에게 행하는 것과 똑같은 식의 인종차별주의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노예시절 백인들이 주장하던 내용 중의 하나가 흑인은 인간 이하의 존재이고 백인은 도덕적으로

---

30) Valerie Smith, *Self-Discovery*, p.152

우월하다는 것이었는데 기타는 수 십 년 동안 흑인을 지배하는데 사용해 온 이 주장을 백인들에게 거꾸로 적용시키고 있었다. 밀크맨은 기타에게 백인이 이상한 인물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고 물으면서 다시 한번 그의 논리의 부족을 입증하고자 한다. 기타는 밀크맨의 질문에 “ 그러면 백인들은 우리 흑인을 죽이기 전에 우리에게 대해 과학적으로 어떤 것을 증명할 수 있었느냐?”(Did they prove anything scientifically about us before they kill us?) 라고 되받아 말하면서 ad hominen 오류<sup>31)</sup>에 빠진다.

밀크맨이 세븐 데이즈는 백인들의 잔학한 행위를 뛰어 넘어 그들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자 기타는 세븐 데이즈가 백인이 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들의 행동 동기가 백인들보다 더 나은 것이므로 그들의 활동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백인들이 그러는 것처럼 재미를 위해서나 흑인들에게 힘을 과시하기 위해 또는 괜히 화가 나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흑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백인들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한다.

“ What I’m doing ain’t about hating white people. It’s about loving us. About loving you. My whole life is love. ”(159)

“내가 하는 일들은 백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야. 우리 종족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나의 삶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

하지만 기타는 나중에 세븐 데이즈의 활동은 “언젠가는 백인들이 그들이 흑인들에게 린치를 가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It’s about trying to make a world where one day white people will think before they lynch)(160)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사랑에 대한 이전 생각을

---

31) 이성애 의하지 않고 감정에 호소하며 이론보다는 논의의 상대를 향한 인신공격을 하는 것

부정한다. 흑인들이 그들 스스로를 가치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세상을 만드는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백인들이 보복이 두려워서 흑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못 하도록 그들을 겁주는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백인들이 흑인 노예들을 괴롭혔던 것과 똑같이 하겠다는 생각이 세븐 데이즈의 활동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기타는 인정한다. 노예 소유주들은 흑인들이 자기들이 잘못 행동을 하면 채찍으로 맞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 그들에게 복종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기타는 이렇게 백인들이 흑인들을 억압할 때 사용했던 방법을 거꾸로 백인들에게 적용시키고자 한 것이다. 밀크맨이 기타에게 일단 백인들을 죽이는데 익숙해지면 어떤 사람도 거리낌없이 죽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을 때조차도 기타는 세븐 데이즈가 하는 일은 오랜 시간동안 늘 그렇게 해 오던 일이라고 말하면서 밀크맨의 충고에 별 관심없는 반응을 보인다.

모리슨은 세븐 데이즈의 철학을 불합리한 것이라고 단정지으면서도 그 단체에 대해 완전히 냉담한 태도는 취하지 않는다. 패트릭 브리스 조크(Patrick Bryce Bjork) 가 말한 것처럼 모리슨은 세븐 데이즈 단원들이 폭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들 개인사를 설명하면서 세븐 데이즈와 같은 단체의 출현에 대해 상당한 이해심을 보인다.(The author shows a certain amount of understanding for the emergence of such groups as the Seven Days by explaining how the member's personal histories account for their recourse to violence)(227)

예를 들면 기타가 백인들을 미워하는데는 그의 아버지가 제재소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죽게 되는 일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어머니가 백인 고용주로부터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보상으로 40달러를 감지덕지하며 받았을 때 그는 흑인들에 대한 사랑과 헌신은 백인들에 대한 증오에 찬 공격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겠다는 것을 확신한다.'(his perception of his mother's moral cowardice and betrayal in eagerly accepting forty dollars from the white sawmill owner convince Guitar that his commitment to and love of black people must find

its expression in hateful aggression)<sup>32)</sup>

더구나 기타의 이러한 보복 행동은 19세기에 일어난 흑인들의 복수와 비슷한 양상일 뿐만 아니라 1950년대와 60년대의 흑인민권운동의 일부분이기도 하다. 마틴 루터 킹의 비폭력 무저항주의는 백인들의 폭력에 대처하기에는 너무나 약해 보여 말콤 엑스와 같은 인물이 지지를 얻기 시작했다.

실제로 1961년 흑인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공공시설 내의 흑백분리 정책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조지아주 알바니에서 하였으나 실패로 끝나자 많은 흑인들은 킹의 방법에 회의를 품게 되었다. "백인들을 미워하지 않고 투쟁할 수 있고 폭력 없이도 싸울 수 있다"(you can struggle without hating, you can fight without violence)(qtd. in Sitkoff 119)는 외침이 "혁명에는 피 흘림이 따르고 혁명은 잔인한 것이며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타협도 없다. 비폭력적인 저항의 시대는 끝났다"(revolution is bloody, revolution is hostile, revolution knows no compromise. The day of nonviolent resistance is over)(qtd. in Sitkoff 143) 라는 외침으로 바뀌게 된다.

세븐 데이즈의 이념이 오류로 가득 찬 논리라는 사실을 접어두더라도 그 단체의 사상이 기타에게 미친 영향을 고려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밀크맨과 기타는 나중에 서로가 서로에게 느끼는 두려움을 나타내었는데 기타는 밀크맨이 흑인들의 문제에 여전히 관심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고 밀크맨은 기타의 태도가 앞서 기타가 지적했던 백인들의 태도만큼이나 부자연스러워져 갔기 때문이다.

더구나 기타가 이처럼 자아 파괴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기 전에 모리슨은 기타의 세븐 데이즈에 대한 태도가 그를 파괴시킬 것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제시한다. 기타는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은 세븐 데이즈의 두 단원, 로버트 스미스와 포터의 이야기를 꺼낸다.

---

32) Bjork Patrick Bryce, *The Novels of Toni Morrison: The Search for Self and Place Within the Community* ( New York: Lang, 1992 ), p99.

모리슨은 스미스와 포터의 묘사를 통해 많은 것을 드러내고 있다. 소설의 맨 앞에 등장하는 스미스의 자살 사건은 그 날이 밀크맨의 생일과 거의 일치한다. 밀크맨은 스미스 자살 사건 다음 날 태어난다. 랄프 스토리(Ralph Story)는 스미스의 자살은 순교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세븐 데이즈의 일원으로 백인을 암살하는 일을 하도록 그가 선택한 삶은 궁극적으로 그에게 스스로 자기 삶을 끝내도록 만들어버렸다”(the life he chose as an assassin for the Seven Days...ultimately gave him only the way to end his life - by his own hands)(151)고 말한다. 사실 기타는 밀크맨에게 "데이즈의 단원들은 너무나 비밀을 지키는데 철두철미해서 스스로가 망가져 간다고 느낄 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살뿐"(Day's members are so devoted to secrecy that if they begin to crack, suicide is their only option)(158)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스미스가 여러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자살을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스토리나 기타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복잡하다. 소설에서는 스미스가 보험외판원으로 암전한 생활을 하여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지 않았다고 쓰고 있다.

He never had a woman that any of them knew about and said nothing in church but an occasional "Amen." He never beat up anybody and he wasn't seen after dark, so they thought he was probably a nice man... Jumping from the roof of Mercy was the most interesting thing he had done. None of them had suspected he had it in him. Just goes to show, they murmured to each other, you never really do know about people.(8-9)

그들이 알고 있는 한 그에게는 여자가 없었고 교회에 와서도 이따금 기도 중에 “아멘”하는 소리를 낼뿐이었다. 누구와 싸웠다는 소리를 들을 적도, 밤거리에서 만난 적도 없어서 거리 사람들은 그가 점잖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가 한 일 중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끈 것은 이번의 이번 병원 지붕으로부터의 비행이었다. 그 누구도 그에게 이런 용기가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던 일이었다. 이 자리에 모여들면서 그들은 사람이란 알다가도 모를 존재라고 수군댔다.

스미스의 평소의 암전한 행동 때문에 아무도 그가 데이즈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의심해 본 사람이 없는 듯 하다. 그래서 그가 행해 온 일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가 속죄하는 마음으로 공개적으로 몸을 던질 필요성을 느낀 것 같다.

스미스가 자살하기 이틀 전에 그의 집 문 앞에 붙여놓은 메모에서 볼 수 있듯이 그가 사용한 낱말들은 읽는 사람에게 그가 데이즈의 일원으로 느꼈던 고통을 알 수 있게 한다. 그 메모에는 “오는 수요일, 1931년 2월 18일 오후 3시에 제가 직접 만든 날개로 자선병원에서 날아가겠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모두를 사랑했습니다.”(At 3:00 p.m on Wednesday the 18th of February, 1931, I will take off from Mercy and fly away on my own wings. Please forgive me. I loved you all)(3)라고 쓰여져 있다.

그가 용서를 구한 것은 그가 데이즈의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저지른 행동 때문이거나 아니면 불명예스러운 자살을 선택한 점 때문이거나 또는 자기 종족을 위해 만족할 만한 일을 하지 못한 대서 오는 모종의 죄책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는 매우 고민했다. 그의 “나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했습니다”(I loved you all)라는 말은 그가 세븐 데이즈 클럽은 흑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결성되었다고 진실로 믿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외의 다른 말들은 사랑의 개념이 변질되어졌고 그를 세븐 데이즈의 단원이 되도록 만든 원동력은 증오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가 사용한 “Mercy”라는 단어는 그가 뛰어내린 장소인 자선병원을 가리키는 하지만 “from”이라는 단어는 그 장소로부터의 이탈 그 이상을 의미할 수 있다. 그것은 스미스가 자살의 결과로 뛰어내렸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는 흑인이 당한 폭력을 되 갚기 위한 방편으로 죄 없는 백인을 죽이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거나 자기 자신에게 연민의 감정이 생겨 데이즈로부터 유일한 탈출의 방법으로 자살을 선택한 것 같다.

또한 그가 “내가 만든 날개로 날아갈 것이다”(fly away on my own wings)라고 말한 것은 그가 데이즈의 손아귀에서 자신을 해방시키고 복수 외의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그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의미한다. 불행하게도 그가 생각하기에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죽음이었다.

스미스가 자살한지 4년밖에 안 되었을 때 동네의 소식통인 프레디가 마콘의 사무실에 나타나 포터의 일에 대해 전하는데 포터는 마콘 소유의 집에 세들어 사는 사람이며 세븐 데이즈의 일원 중 하나인데 술에 취해 총을 가지고 자기 집 다락 유리창에 서서 뛰어 내리겠다고 위협하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24) 포터는 아침이 되기 전에 누군가를 죽여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마콘과 프레디, 그리고 다른 구경꾼들은 그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포터는 그가 데이즈의 단원이므로 누군가를 죽여야 할 것이다. 포터는 반복해서 잠자리를 함께 할 누군가를 요구하는데 그것은 아마도 그가 데이즈의 일원으로 그의 행동의 근원이 되는 미움을 해독시켜 줄 것으로 사랑의 필요성을 느껴서인 것 같다. 포터는 놀라면서, 동시에 호기심을 느끼며 모여있는 군중들 머리 위로 오줌을 갈기면서 외친다.

I love ya! I love all. Don't act like that. You women. Stop it. Don't act like that. Don't you see I love ya? I'd die for ya, kill for ya. I'm saying I love ya. I'm telling ya. Oh, God have mercy. What I'm gonna do? What is this fuckin world am I gonna dooooo? (26)

난 너희들을 사랑해. 사랑한단 말이야. 나한테 그러지 마. 그러면 안돼. 네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걸 몰라? 난 너희들을 위해 죽는 거야. 사랑한단 말이다. 오, 하나님, 용서해 주소서.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지? 이 똥걸

레 같은 세상에서 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이러한 절규는 그도 역시 데이즈의 임무가 흑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행동이라고 믿도록 유도되어졌다는 것을 드러낸다. 하지만 이 사랑은 그가 견뎌내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것이었다. 그는 또 외친다.

Gimme hate, Lord... I'll take hate any day. But don't give me love. I can't take no more love, Lord. I can't carry it. Just like Mr. Smith. He couldn't carry it. It's too heavy. Jesus, you know. You know all about it. Ain't it heavy? Jesus? Ain't love heavy? Don't you see, Lord? You own son couldn't carry it. If it killed Him, What You think it's gonna do to me? Huh? Huh? (26)

이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미워하게 해 주십시오. 지붕에서 떨어져 죽은 스미스 씨처럼 더 이상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은 너무나 무거운 짐입니다. 주여, 제발 거두어 주십시오.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거운지.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도 사랑을 하다 죽은 게 아닙니까? 사랑이 예수를 죽였다면 나는 어떻게 하란 말씀입니까?

분명 포터는 예수가 인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처럼 자기도 오직 흑인을 위해 몸바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의 흑인에 대한 사랑은 명백히 자기 희생적이지만 그것은 자신도 모르게 증오를 갈망하는 지경까지 그를 파괴시켜 놓았다. 스미스에 드러나는 그의 감정과 똑같은 감정이 포터의 외침 속에서도 명백히 드러나는데 그것은 절망감이며 세븐 데이즈의 단원으로 활동하는 데서 오는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그를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베시 존(Bessie Jone)과 오드리 빈슨(Audrey Vinson)이 말한 것처럼 “그는

세븐 데이즈의 행동 원동력인 백인에 대한 증오를 선택하긴 했지만 종족의 원수를 갚기 위해 살인도 불사해야 하는 종족에 대한 사랑이 그에게는 너무나 큰 짐이었다”(He had chosen hate, the dynamo of the Seven Days, but the intrusion of love - for those for whom he sought revenge, and the intrusion of frustration born of the loneliness of isolation, were too heavy a burden for him)<sup>33)</sup>

포터는 난동을 부리는 이 시점에서는 기절했기 때문에 목숨을 건졌지만 나중에는 코린시안스 데드와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발견함으로써 정신적으로 해방되어질 수 있다. 그녀와의 관계 속에서 그는 진정으로 자기 종족의 일원을 백인의 폭력으로부터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는 코린시안스를 마콘의 백인중심적이고, 물질적이며, 가부장적인 가치관에서 구하기 때문이다. 코린시안스와 포터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그는 데이즈와의 결별을 시작한다. 세븐 데이즈와 결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나 자살이다.

세븐 데이즈가 스미스와 포터에게 끼친 고통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기타가 실제 역사적 사건과 연결하여 데이즈의 이름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순간 이미 그가 자기 파멸의 길로 점점 빠져 들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1963년 9월 15일 일요일에 버밍햄에 있는 16번가 침례교회에서 일어난 폭발로 열 한 살에서 열 네 살 가량의 흑인 여자아이 네 명이 죽고 몇 몇 다른 아이들은 부상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은 8년 동안 버밍햄에 살고 있는 흑인들을 대상으로 일어난, 모두 미결로 처리된 폭발 사건 중 스물 한 번째에 해당하는 사건이었다.(Adams 146).

기타는 ‘일요일의 남자(Sunday man)<sup>34)</sup>’였기 때문에 그 일에 연관되지 않을

---

33) *The World of Toni Morrison: Explorations in Literary Criticism* ( Dubuque: Kendall, 1985 ), p.94

34) 세븐 데이즈 단원은 일곱 명으로 구성되어 한 사람씩 각 요일에 배치되어 자기가 맡은 요일에 흑인차별에 대한 보복 행위를 하는데, 기타는 일요일의 임무를 맡고 있다.

수 없었다. 기타는 그 사건 외에는 아무 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다. “ 기타는 매일 밤 일요일용 드레스의 작은 조각을 보는 게 습관처럼 되어가고 있었다. 흰색과 분홍색, 푸른색, 자주색과 흰색, 벨벳, 비단, 면, 공단..."(Every night now Guitar was seeing little scraps of Sunday dresses - white and purple, powder blue, pink and white, velvet and silk, cotton and satin) (173) 기타는 살해당한 소녀들의 드레스 조각들을 보면서 스미스가 병원 옥상에서 떨어지던 날 눈 위에 흩어진 벨벳 꽃잎들을 떠올린다. 그 때 일을 회상하면서 기타는 루스 데드가 출산을 앞두고 있었다는 것, 그의 할머니가 거기에 계셨다는 것, 또는 파일럿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직 레나와 코린시안스가 흩어진 벨벳 꽃잎들을 허리 굽혀 줌고 있었다는 것만을 떠올린다. 이러한 이미지의 연결은 기타가 계획하고 있는 보복 살인이 그를 스미스처럼 자아 파멸의 길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기타의 임무는 일요일에 흑인 소녀들이 죽은 것과 같은 방법으로 백인 소녀 네 명을 죽여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폭발물을 사기 위해 돈이 필요했다. 그래서 밀크맨이 파일럿의 금을 훔치자고 제안했을 때 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되어서 무척 기뻐한다. 기타와 밀크맨이 금을 훔칠 계획에 착수하자마자 기타는 그의 임무에 더욱 집착하고 기꺼이 무슨 일이든 수행하려고 한다. 그는 금을 팔아 생긴 돈으로 그의 가족들을 위해 무엇이든 사 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아니러니컬하게도 밀크맨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그들의 범죄를 합리화하려고 한다.

“This ain’t no burglary. This is Pilate.” When Milkman says, “So?”  
Guitar replies, “So! They’re your people” (181)

“그건 강도짓이 아니야. 파일럿의 집이잖아” 밀크맨이 “그래서?”라고 반문하지 기타는 “그들은 네 가족이니까.”라고 대답한다.

자신의 가족에 대한 헌신을 표현한 직후에 가족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적합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기타는 그의 가족을 금을 얻기 위한 구실로 이용한 것일 뿐이다.

기타와 밀크맨이 파일럿에게서 훔쳐내 온 자루에 뼈밖에 없다는 것이 밝혀지자 그는 몹시 화가 난다. 경찰서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차안에서 “기타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그의 분노는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와 같아서 열린 창으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오히려 시원하게 느껴질 정도였다.”(Guitar never said a word. His anger was like heat shimmering out of his skin, making the hot air blowing in through the open window seem refreshing by comparison)(207) 그리고 그는 자루 속에 그가 원하는 금이 들어있지 않은 것이 파일럿의 잘못인양 생각하는 것 같다.

이로 인해 화가 난 기타는 밀크맨을 불신하게 되는데, 그도 또한 여러 면에서 밀크맨을 속였다. 밀크맨이 덴빌로 떠나기 전에 한 대화 속에서 기타는 마콘이 최근에 그들 가족을 집에서 내쫓은 사실을 상기시키고 자기는 마콘이나 코린시안스, 레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밀크맨은 “그럼 왜 나는 믿지?”(Why you trust me?)라고 묻고 그는 “나도 나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하지 않게 되길 바라네”(Baby, I hope I never have to ask myself that question)(225)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분명히 기타는 이미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했었다. 왜냐하면 그는 덴빌과 살리머로 밀크맨을 쫓아가서 동네 가게에 “너의 날이 다가왔다”(Your days has come)라는 메시지를 남기는데 그것은 데이즈의 단원들이 그들의 희생자들을 죽이기 바로 전에 그들에게 하는 바로 그 말이기 때문이다. 밀크맨은 기타가 그런 특별한 메시지를 남긴 것은 밀크맨에게 자기가 그곳에 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이거나 아니면 그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밀크맨의 결코 기타의 신의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불과 며칠 뒤 밀크맨이 살리머의 사람들

과 사냥을 하고 있을 때 기타는 숲 속에서 그를 목 졸라 죽이려고 한다. 밀크맨이 공중으로 위협 사격을 하고 나서야 기타는 물러선다.

앞에서 기타는 데이즈가 하는 일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 균형이라는 것을 그는 유지하지 못 한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데이즈의 정책에 반대하는 동료 흑인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구마저도 기꺼이 죽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밀크맨과 기타는 밀크맨이 파일럿을 살리머로 데려가기 위해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나게 되는데 기타는 밀크맨이 금과 관련해서 그를 속인 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강한 불만을 표시한다. 그는 밀크맨이 덴빌의 기차역에서 금을 실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기타는 데이즈를 언급하면서 밀크맨이 그들 서로 간의 신의를 저버렸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했다고 순순히 시인한다. 그는 몹시 격분하여 밀크맨에게 말한다. “ 너의 날이 다가왔다. 나는 땅 끝까지라도 너를 쫓아 갈 것이다 ”(Your days has come. I will run you as long as there is ground) (297) 밀크맨이 자기는 금을 발견하지도 못했고 기차역에서는 어떤 남자가 무거운 나무상자를 싣는 것을 도와 준 것뿐이고 아무것도 싣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화가 몹시 나 있는 기타는 그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살리머에서 금이 든 상자가 오기를 기다린 후 자기를 속이려고 한 밀크맨을 죽이려고 계획한다.

밀크맨은 자기의 지난 생활이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일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삶이었으나 이제는 그런 과거에서 벗어나 크고 무거운 상자를 들어 올리는 백인을 기꺼이 즉흥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타에게 알리려고 한다. 기타는 밀크맨이 덴빌과 살리머로 여행하는 동안 인격의 변화를 겪은 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 결국 기타는 아버지의 뼈를 묻기 위해 살리머로 온 파일럿을 죽이게 되고 자신을 향해 뛰어내리는 밀크맨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게 된다.

기타는 밀크맨에게 민족의식을 일깨워주고 밀크맨으로 하여금 자신만 생각

하는 이기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혹은 공동체에 관심을 갖게 하는 커다란 역할을 하지만 그의 극단적인 저항과 폭력성은 마침내는 같은 종족마저 죽이게 되는 파괴적이고 왜곡된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 IV. 흑인문화를 통한 정체성의 회복

### 1. 정신적 지도자로서의 파일럿

모리슨은 1974년 미국 흑인의 삶에 관한 자료서 흑인실록(*The Black Book*)을 편집하면서 흑인문화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노예매매서나 편지, 신문기사 사진, 조리법 등 노예시절부터 2차 대전에 이르기까지 흑인의 구체적 삶의 자취를 보여주는 자료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모리슨은 고통과 억압의 역사에 대해 분노하고 슬퍼하기도 하였지만 억압에도 불구하고 자랑스럽고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낸 흑인민족의 승리에 대해 기쁨을 느꼈다.

「솔로몬의 노래」에서 중심틀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흑인문화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전통으로서 말과 글을 억압당한 상태에서도 그들의 고통을 노래할 수 있었던 블루스나 이야기, 속담, 격언 등을 제시하여 전통적 가치와 집단의 결속력을 보존하였다.<sup>35)</sup>

진정한 흑인문화 유산을 보유하고 정체성을 확립한 인물은 밀크맨의 고모 파일럿인데 그녀는 또한 밀크맨이 흑인문화의 의미를 인식하고 자아탐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물질적인 가치관과 가부장적인 위계 질서에 의해 지배되는 숨막힐 듯한 공간인 데드의 집과는 달리 파일럿의 가정은 여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어느 한 사람에 의해 인간관계가 지배되어 있지 않아 서로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며 집안 전체에는 자유롭고 평온한 분위기가 느껴지고 따뜻한 음악이 흐르고 있

---

35) 모리슨은 텍스트 안에 노래와 이야기 등의 구전전통을 직접 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텍스트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의 느낌을 주도록 만든다. 그녀는 가능한 한 활자화된 언어의 느낌을 없애어 억양과 제스처가 살아 있는 구어의 느낌을 전하려고 하며 텍스트 읽기에 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여백을 만들어서 이야기꾼과 청중의 긴밀한 관계를 저자와 독자 사이에도 만들어 내려한다. ; Lawrence W. Levine, *Black Culture & Black Consciousness: Afro-American Folk Thought from Slavery to Freedo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7), p. 6.

다. 파일럿 집안의 분위기는 마콘이 창문을 통해 파일럿의 집을 엿보는 장면에서 잘 드러난다.

He turned back and walked slowly toward Pilate's house. They were singing some melody that Pilate was leading. A powerful contralto, Reba's piercing soprano in counterpoint, and the soft voice of the girl, Hagar, who must be about ten or eleven now, pulled him like a carpet tack under the influence of a magnet. Surrendering to the sound, Macon moved closer. He wanted no conversation, no witness, only to listen and perhaps to see the three of them, the source of that music that made him think of field and wild turkey and calico.... Reba's soft profile, Hagar's hands moving, moving in her heavy hair, and Pilate.

다시 돌아선 마콘은 누이동생의 집을 향해 천천히 걸었다. 그들은 파일럿의 선창에 따라 노래를 하고 있었다. 파일럿의 우렁찬 콘트라alto에 이어 레바의 날카로운 소프라노가 들렸고, 헤거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뒤를 이었다. 음악에 싸인 채 다가가는 마콘은 누구의 마중도 대화도 필요치 않았다. 오직 음악만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들의 음악은 들소와 칠면조가 뛰노는 정원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다. ... 레바의 부드러운 옆모습, 머리를 땀고 있는 열 두 어살 가량의 헤거, 그리고 부지런히 손을 놀리고 있는 파일럿, 그들의 모습은 음악과 함께 아름답게만 보여지는 것이었다.

이렇게 사랑과 자유로움과 음악으로 가득 찬 파일럿의 집에서 밀크맨은 처음으로 완전한 행복을 느낀다. 파일럿은 밀크맨에게 인간의 삶에서 무엇이 진정 중요하고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필요한지를 보여주며 그의 삶에 영향을 준다.

또한 파일럿의 집안에는 흑인문화가 생생하게 살아있다. 파일럿은 블루스와 이야기하기, 약초요법 같은 흑인민속문화를 실천한다. 그녀는 푸르스름한 회색

폴로 마콘의 성욕을 자극시켜 루스를 임신하게 하며, 마콘이 아내를 유산시키려 할 때에도 부적처럼 생긴 인형을 사용해서 그의 시도를 좌절시킨다. 소설 전반에 걸쳐서 음악은 다양한 상황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특히 파일럿의 집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파일럿이 로버트 스미스의 자살 장면을 목격할 때, 마콘이 어느날 밤 몰래 그녀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리고 헤거의 장례식에서 음악은 가족의 역사를 간직하고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즉 놀라움이나 즐거움, 슬픔과 같은 여러 감정들을 즉흥적인 노래로 표현하는 흑인들의 고유한 구술 전통을 전수한다. 더욱이 밀크맨이 태어날 때 파일럿이 불렀던 '솔로몬의 노래'는 후에 밀크맨의 자아 정체성 탐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작품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 중의 하나는 밀크맨이 살리머에서 마침내 그 노래에 담긴 뜻을 해독할 때이다.

더욱이 파일럿은 말의 힘(nommo)<sup>36)</sup>이 가지는 효과를 잘 알고 있는 인물로서 주위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하고 공동체내에서의 직분을 명심하도록 가르친다. 그녀는 밀크맨과 기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들에게 말하는 법과 남의 말을 듣는 법을 가르친다.

"Hi"

The woman looked up. First at Guitar and then at Milkman.

"What kind of word is that?" Her voice was light but gravel-sprinkled.

Milkman kept on staring at her finger, manipulating the orange. Guitar grinned and shrugged.

"It means hello."

"Then say what you mean."

"Okay. Hello."

---

36) Karla Holloway의 "The Legacy of Voice : Toni Morrison's Reclamation of Things Past"에 의하면 서부 아프리카 개념에서 "nommo"는 "mother's or female ancestor's voice"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과거와 미래 세대를 연결하며 문명을 일으키는 창조적 행위가 된다고 한다. ; 김애주 「토니 모리슨 연구」(한국문화사, 1999), p.95에서 재인용

"That's better. What you want?"

.....

She was too direct, and to keep up with her he had to pay attention to his language.<sup>37)</sup>

“안녕”

여자가 처음에는 기타를 그리고는 밀크맨을 올려다보았다.

“그게 무슨 말이나?” 그녀의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자갈 흩어지는 소리가 났다. 밀크맨은 오렌지를 다루고 있는 그녀의 손을 쪽 응시하고 있었다. 기타는 썩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안녕하세요란 뜻인데요.”

“그럼 그렇게 인사해야지.”

“알겠어요. 안녕하세요.”

“훨씬 듣기 좋구나. 어떻게 왔니?”

.....

그녀는 너무 직선적이고, 그녀의 말을 따라가려면 그녀가 하는 말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과일렁은 이 두 소년들에게 언어교육 뿐만 아니라 주의 깊게 듣는 것의 중요성도 함께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밀크맨의 황금탐색이 보다 위대한 가족의 역사와 아프리카 전통유산에 대한

---

37) Yvonne Atkinson, "The Black English Oral Tradition in the Works of Toni Morrison" *The Aesthetics of Toni Morrison* (University Press of Mississippi, 2000), pp.20-21

탐색으로 바뀌게 되는 것도 흑인 문화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파일럿의 가르침을 통해서이며 밀크맨이 조상의 나는 아프리카인의 전설을 알아내는 것도 파일럿과의 관계에서이다.

이와 같이 파일럿과 밀크맨의 관계는 이 소설의 중심이 되는 관계이다. 아버지 메이콘 데드가 시키는 대로 월세 거두어들이는 일이나 하면서 흑인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었던 밀크맨은 파일럿을 만나고 부터 정신적 성장을 한다. 물질적인 부만을 중요시하는 아버지와 주체성 없고 무력한 어머니 루스와는 달리 파일럿은 밀크맨에게 있어 그의 출생에서부터 자아 정체성 확립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존재인 것이다.

## 2. 밀크맨의 자아탐색여행

토니 모리슨은 작품 속의 등장인물의 발전 과정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주로 조셉 캠벨의 단일신화(monomyth)<sup>38)</sup>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캠벨은 신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네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 즉 초자연적인(mystical) 인물, 우주 철학적인(cosmological) 인물, 사회학적인(sociological) 인물, 교육자적인(pedagogical) 인물의 모습이 그려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단일신화 속에는 네 번째 인물 즉 다른 사람에게 교육적인 모범이 되는 인물이 등장하여 주어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솔로몬의 노래」에서도 역시 이러한 단일신화의 형태를 따르고 있으며 주인공 밀크맨은 소설 전체에 걸쳐서 신화적인 영웅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소설의 전반부에 보여지는 밀크맨은 가부장적 중산층 가정에서 성장한 전형

---

38) 조셉 캠벨은 주인공의 탐색과 발견 양식(the form of a quest and discovery)을 가리켜 단일신화라 지칭하는데 이 단일신화는 전 세계에 걸쳐 신화와 민담에서 발견되며 세 가지 국면, 즉 분리(separation), 경험의 시작(initiation), 귀환(return)을 거친다고 하였다. Dorothy Van Ghent, Keats: The Myth of the Hero (ed. Jeffrey Cane Robinson. Princeton UP, 1983), p22

적인 흑인 남성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밀크맨의 관심은 다분히 소모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에 관련된 것뿐이었으며 가난한 흑인들의 비참한 삶이나 백인에 의해 억압당하고, 차별 받는 동족의 고통에 무관심하여 에밋 킬 사건으로 도시의 모든 흑인들이 흥분할 때에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또한 밀크맨은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언제나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에 감사할 줄 몰랐다. 이렇듯 밀크맨은 신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나 정신적으로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밀크맨의 자기중심적인 성격은 가족이나 여자 친구에 대한 태도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는 어머니를 독립된 한 개인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누나들 또한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세탁과 청소, 요리를 해주는 하녀와 같은 존재로만 본다 그의 누나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의 오만함은 사십 년동안 억눌려 온 자아를 처음으로 표현하는 레나의 말속에서 잘 드러난다.

You've been laughing at us all your life. Corinthians. Mama. Me. Using us ordering us, and judging us: how we cook your food; how we keep your house Who are you to approve or disapprove anybody or anything? Our girlhood was spent like a found nickel on you. When you slept, we were quiet; when you were hungry, we cooked; when you wanted to play, we entertained you; and when you got grown enough to know the difference between a woman and a two-toned Ford, everything in this house stopped for you. And to this day, you have never asked one of us if we were tired, or sad, or wanted a cup of coffee. You've never picked up anything heavier than your own feet, or solved a problem harder than fourth-grade arithmetic. Where do you get the right to decide our lives?

넌 이제껏 나나, 어머니, 코린시안스에 대해 조소를 해 왔어. 우리의 음식 솜씨를 혹평했고 살림을 잘 못 한다고 불평했어. 도대체 네가 무슨 권리로 사

람을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우리의 소녀 시절은 너에게 빼앗겨 버린 셈이야. 네가 잘 때에 우리는 숨소리마저 죽여야 했고, 네가 배고플 것 같으면 다른 일 다 집어치우고 음식을 만들어야 했으며, 네가 심심해하면 아무리 피곤해도 너와 놀아 주어야 했어. 이 집안의 모든 것과 모든 사람들은 너만을 위해 존재하는 셈이나 마찬가지였어. 그런데도 넌 우리에게 피로하냐고, 아니면 기분이 어떠냐고 단 한 번이라도 물어 봐 준 적이 있어? 커피 한 잔 권해 본 적이 있어? 너는 내 발 무게보다 더 나가는 물건을 들어 본 적도 없고 4학년 수학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풀어 본 적이 없어. 그런 네가 감히 어떻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려 드는 거지?

밀크맨의 남성 중심적인 이기심은 12년 동안 지속되어 온 헤거와의 관계를 청산하는 부분에서 가장 분명하게 보여진다. 그는 헤거가 결혼상대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단순한 욕구충족의 대상으로 이용해 오다가 돈을 주면서 그녀와의 관계를 끊으려 한다. 헤거가 한 달에 한 번씩 자신을 죽이려 쫓아다닐 때에도 그는 그녀의 상처받은 심정을 헤아리거나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이러한 밀크맨이 파일럿을 만나고부터 변화를 겪는다. 파일럿은 밀크맨에게 그녀와 그의 아버지의 어린 시절 이야기와 밀크맨의 할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 준다. 밀크맨이 자기 가족의 역사에 대해 듣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밀크맨은 파일럿의 흑인문화를 고수하고 있는 생활 태도와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신 등에 감동을 받고 동화되어 마침내는 자아탐색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이다.

2부는 이미 덴빌에 도착한 밀크맨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흥미롭게도 모리슨은 헨젤과 그레텔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이 장을 시작한다.

여기에서는 과자로 만든 집 앞에서 두 아이들이 느꼈을 절박함을 그리고 있다. 작가는 “그들은 불안한 생각이 들었지만 너무나 배가 고파 집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blinding hunger alone could have propelled them forward)라고 말하면서 밀크맨이 덴빌로 오게 된 것도 이와 같은 종류의 배고픔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성인도 배고픔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된다. 그의 허기를 채울 수 있게 될 것 같으면 다리가 후들거리거나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것은 사라질 것이다. 그가 갈망하는 것이 과자나 껌이 아니라 금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A grown man can also be energized by hunger, and any weakness in his knees or irregularity in his heartbeat will disappear if he thinks hunger is about to be assuaged. Especially if the object oh his craving is not gingerbread or chewy gumdrops, but gold)(219)

밀크맨과 기타 둘 다 이유는 다르지만 똑같이 절박한 심정에서 금을 원하는다. 기타는 세븐 데이즈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이 필요하고 밀크맨은 금이 자신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다. 모리슨은 밀크맨이 미시건을 떠나기 전에 몇몇 지난 사건에 대해 회상하는 기법을 사용하는데 독자들은 여기에서 밀크맨이 덴빌로 떠나기 전에 기타에게 한 말을 알게 된다.

I just want to live my own life. I don't want to be my old man's office boy no more. And as long as I'm in this place I will be. I have to get out of that house and I don't want to owe anybody when I go(221-222)

나는 나 자신의 삶을 살고 싶어.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회계나 보는 사원으로 남아있고 싶지 않아. 내가 여기에 있는 한은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나 자신의 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말이야. 나는 집에서 독립해야 해. 그리고 그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

밀크맨과 기타가 처음에 금을 훔칠 계획을 세울 때 금이 있다는 것은 동화속 이야기 같아 그 계획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 잠시 주저한다. 하지만 기타는 금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계획을 실천에 옮기게 된다.

밀크맨이 쿠퍼(Cooper) 목사를 방문했을 때 쿠퍼는 밀크맨에게 그의 할아버

지와 아버지가 덴빌에 살 때의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이 때 밀크맨은 쿠퍼가 자기에게 이야기를 해 주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라는 것을 깨닫는다. (230) 쿠퍼 뿐만 아니라 쿠퍼의 집을 방문한 덴빌에 살고 있는 모든 노인들이 옛 추억을 더듬어 밀크맨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 (235) 밀크맨은 자기 아버지를 최대한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경제적으로 빈곤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이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자랑하면서도 그의 지칠줄 모르는 탐욕과 이기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마콘이 성공했다는 것을 들은 그들이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자 밀크맨은 금에 대한 욕심이 한층 커진다. 왜냐하면 그도 그들의 존경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들 마을의 일원이 되려면 자기 자신의 성공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밀크맨은 마침내 그들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것은 금이나 그가 내세울 수 있는 자랑거리 때문이 아니었다. 그 대신에 모리슨은 밀크맨이 자기 가족의 역사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 감에 따라 그가 가진 물건들을 하나 둘씩 잃어가고 사람들을 얻는 것을 순차적으로 그리고 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마콘이 그이 재산에 집착하는 것은 그를 그의 가족과 자기 종족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주요 요소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그 부라는 것이 밀크맨에게도 같은 식으로 작용하였는데 그가 가진 물건들을 하나 둘씩 잃어감으로써 그의 그릇된 자만심도 점차 사라져 가게 되는 것이다. 밀크맨이 덴빌에 도착했을 때 그는 두 개의 가방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개는 찾게 될 금을 담은 큰 가방이었고, 다른 작은 가방에는 두 병의 물, 셔츠 두 장, 속옷 등 개인 물품이 들어 있었다. 게다가 그는 "베이지색 슈트와 세로로 단추가 달린 파란색 셔츠를 입고 있었고 검은색 줄 넥타이를 매고, 비싼 신발을 신고 금시계 "(beige three-piece suit, button-down light-blue shirt and black string tie, Florsheim shoes and a gold watch)(227)를 차고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은 덴빌과 같은 시골에서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다.

덴빌 마을 사람 어느 누구도 밀크맨의 외관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화려한 옷들은 쿠퍼 목사의 조카가 서시(Circey)가 살고 있는 숲 속 저택으로 가는 입구에 그를 내려 주자마자 망가지기 시작한다. 사람들이 못한 공격을 자연이라도 하는 양 “그의 모자는 오래 된 호두나무 가지에 걸려 벗겨져 바닥에 떨어지고 바지는 이슬 맺힌 풀밭 사이로 일 마일이나 걸어 다 더럽혀졌다.”(his hat had been knocked off by the first branch of the old walnut trees... and his cuffless pants were darkened by the mile-long walk over moist leaves) (238)

밀크맨은 서시의 집을 나와 금이 있다고 추정되는 동굴을 수색하는데 그 동굴로 가기 위해 그는 시내를 건너야 했다. 그는 신발과 양말을 벗고 바지도 걷어올리는 등 옷이 젖지 않게 하려고 애썼지만 시내 바닥에 있는 미끄러운 돌 위에 미끄러져 바지는 젖고 신발은 물에 떨어뜨린다. 더구나 보기보다 깊은 곳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빠지게 된다. 강둑에 도착할 때쯤에는 완전히 물에 젖었고 시계 유리가 깨져 분침이 구부러졌다. 나중에 그가 살리머에 있는 수잔 버드(Susan Byrd)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의 시계를 마음에 들어하던 그레이스가 시계를 구경하자고 해서 풀러 주었는데 결국은 돌려 받는 것을 잊은 채로 헤어지게 된다.

이렇듯 그는 텐빌에 있는 동안 그가 소유하고 있던 거의 모든 물건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살리머에서는 가지고 있던 돈도 거의 써 버리게 된다. 그는 텐빌을 떠나 버지니아로 향했는데 그가 찾고자 하는 곳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그가 살리머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곳으로 가는 기차나 버스가 한 대도 없다는 사실도 함께 알게 되었다. 그래서 75달러를 주고 차를 사는데 그 차가 고장이 나서 132달러나 주고 고친다.

밀크맨은 사냥을 하면서 그가 입고 있던 옷 전부를 바꿔 입는다. 그의 슈트는 사냥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냥하는 사람들은 그에게 부츠와 사냥 양말, 군복, 니트 모자 등을 걸치게 한다. 이러한 복장은 살리머에 훨씬 더 어울리는 복장이었다. 밀크맨이 주머니에 손전등을 집어 넣을 때 사냥꾼 중

의 하나인 칼빈이 주머니에서 잔돈을 꺼내라고 말한다. 그것은 동전 소리가 나면 사냥감이 사냥꾼이 오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밀크맨이 미시건을 떠날 때 가지고 온 거의 모든 물질들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밀크맨이 다른 사냥꾼들과 숲 속을 걸어가는 것이 힘이 드는 것을 느꼈을 때 그가 가진 물질적인 부가 얼마나 가치가 없는가가 명백해진다.

There is nothing here to help him now - not his money, his car, his father's reputation, his suit or his shoes. In fact they hampered him. Except for his broken watch, and his wallet with about two hundred dollars, all he had started out with on his journey was gone... His watch and his two hundred dollars would be of no help out here, where all a man had was what he was born with, or had learned to use. And endurance. (277)

현재 이곳에는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그의 돈도, 그의 차도, 그의 아버지의 명성도, 그의 옷과 신발 그 어떤 것도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들은 그에게 방해가 될 뿐이다. 깨진 시계와 이 백 달러 정도 들어있는 지갑 외에는 그가 여행을 떠날 때 가지고 왔던 것들이 모두 사라졌다. 그의 시계와 이 백 달러의 돈도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을 사용하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이 곳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밀크맨이 아버지가 가진 부의 공허함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파일럿에게서 배운 생존법, 특히 귀 기울여 듣는 능력에 의존하게 된다. 가브리엘 포먼에 따르면 파일럿은 그녀의 이름이 담겨져 있는 담배갑 모양의 상자를 귀에 걸고 다니는데 “그것은 말의 가치는 듣고 말하는 것에 있다는 것, 즉 살아있는 전통

이란 구전되는 것이라는 파일럿의 믿음을 상징한다”(to symbolize her belief that the value of the word is in the hearing, in the telling, that the living tradition is an oral/aural one) (372)고 한다.

밀크맨은 파일럿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듣는 능력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기타가 접근하는 것을 듣고 그를 목 졸라 죽이려고 했던 철사줄을 기타에게서 뺏을 수 있었던 것이다. 포먼이 지적하듯이 “ 듣는 것은 그에게 파일럿이 부른 노래 소절을 생각해 내게 하고 그 노래 속에 들어있는 가족의 역사를 인식하게 해 준다.”(Listening also allows him to puzzle out the pieces of Pilate’s song and recognize in it his family’s history) (374) 그는 종이는 있으나 연필이 없어서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기억해야만 했다. 다시 한번 아버지의 가치관이 아니라 파일럿의 가치관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드디어 밀크맨은 자신의 역사에 대한 방관자의 입장에서 참여자로 바뀌게 된다.”(Milkman abandons his status as observer and becomes a participant in his own history) (Foreman 374)

사냥과 동네 청년과의 싸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띠는데 그것은 살리머의 사람들이 그러한 시험을 거쳐 밀크맨을 자기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여행을 통해 밀크맨은 덴빌과 살리머에 사는 흑인들과 유대감이 생기고 공동체 의식이 커진다. 이것은 지금까지 그를 지배하던 백인 중심적인 가치관과 흑인민권운동과 자기 종족의 투쟁에 대한 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의 역사를 차츰 알아감에 따라 그의 태도에 있어서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다. 밀크맨에게 있어서 금을 찾기 위해 떠난 길이 자기 자신을 찾는 길이 된 것이다.

여행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밀크맨은 그의 가족의 역사를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만 보았다. 밀크맨은 덴빌에서 만난 사람들과 자기 아버지 마콘 데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가족에 대한 일종의 자부심을 느낀다. 처음으로 그는 자기 가족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지만 그가 이러한

자부심을 느끼도록 만드는 동기 자체가 잘못된 것이므로 그 자부심은 헛된 것이다.

밀크맨은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리머로 가는데 그 곳에는 그나 그의 아버지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는 살리머 사람들이 덴빌 사람들처럼 그를 우대해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난다. 그의 조상 중 몇 명이 그 곳에 살았기 때문에 그를 환영하는 분위기를 기대했지만 실망한다. “ 덴빌에서는 그가 가진 물건들로 인해 대우를 받았고, 미시건에서는 그를 시기하면서도 가진 부에 대해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여기, 그가 진정한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는 그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미움을 받으며 죽임을 당할 뻔했다”(In Danville they had made him the object of hero worship. In his own home town his name spelled dread and grudging respect. But here, in his home, he was unknown, unloved, and damn near killed)( 270) 명백히 밀크맨은 ‘사람’을 가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직 깨닫지 못했다.

밀크맨이 서시를 찾아갔을 때 그는 그의 가족을 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동굴을 찾는데 필요한 도구로 이용한다. 밀크맨이 그가 찾고 있는 동굴에 그의 할아버지의 시체가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는 서시에게 남아있는 유골이나마 물어 드리러 그곳에 가고 싶다고 말한다. 서시는 “참 기특한 생각이다”(That’s a thought worth having) (245)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의 생각이라는 것이 거짓말이었다. 동굴로 가는 길에 밀크맨은 동굴 주위를 기웃거리다가 잡히면 이 생각을 구실로 삼아야겠다고 결심한다. 그의 이처럼 냉정하고 돈만을 생각하는 태도는 그가 조상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부족한 데서 기인한다.

조 베이즐먼(Joe Weixlmann)은 밀크맨이 자기 가족의 역사에 대한 몇몇 단편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여행하는 동안 그 정보들을 바르게 짜 맞추어 하나의 완전한 모습을 만들어 내야 하는 탐정과 같다고 말한다. 베이즐먼의 말이 대체적으로 옳기는 하지만 밀크맨은 금을 찾는 일에 너무나 몰두해 있어서 그

가 가진 정보의 조각들을 서서히 맞추어 나가지 못한다. 그 대신에 그는 한꺼번에 모든 조각들이 짜 맞추어지는 현현(epiphany)<sup>39)</sup>의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

살리머에서 사냥을 하고 나서 밀크맨은 그들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징표로 그 마을의 여자를 소개받는다. 이 순간에조차도 밀크맨은 그가 살리머에 온 목적, 즉 금을 찾는 일을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83) 어쨌든 밀크맨은 이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 들여졌기 때문에 그로 인해 그의 할머니 싱(Sing)에 대한 것도 더 많이 알게 되고 수잔 버드가 살고 있는 곳도 알게 되는데, 그녀는 그의 할머니에 대한 많은 정보를 그에게 제공해 주고 날아가는 아프리카인(the flying African)<sup>40)</sup>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준다.

밀크맨은 여전히 금에 대해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그의 생각은 차츰 자신의 조상에 대한 궁금증과 가족에 대한 인식으로 전환되어 간다. 밀크맨은 수잔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저는 미시건에서 왔는데 저의 사람들 중의 몇 명이 오래 전에 이곳에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I’m from Michigan and I think some of my people lived here a long time ago) (287)라고 말한다. 소설 속에서 그가 그의 가족을 가리켜 “my people” 라고 말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그가 덴빌에서 처음으로 쿠퍼 목사를 만났을 때 쿠퍼 목사가 그에게 처음으로 한 말은 “ 나는 너의 사람들을 알고 있어! ”(I know your people!) 였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밀크맨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 (229) 사실 그는 그런 표현이 이상하게 느껴졌었다. 그는 혈연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몰랐다.

---

39) 원래 신의 나타남을 의미하는 종교적인 용어로서 구유에 누운 아기 예수가 동방 박사들에게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을 말하는데 예술가를 상상력의 사제로 본 조이스(James Joyce)는 이 종교적 어휘를 세속화하여 예술적 용어로 옮겨 쓴 것이다. 조이스에 의하면 주인공과 등장인물들이 위기의 순간에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갑작스런 정신의 계시( a sudden spiritual revelation or manifestation )이다.

40) 아프리카에는 흑인들이 백인이 가져온 소금을 먹기 전까지는 하늘을 날 수 있었다는 신화가 전해져 내려온다. 그래서 ‘비행’은 노예생활을 하는 아프리카계 흑인들 사이에서 자유의 상징으로 간주되어 왔다. ; Gayl Jones, *Liberating Voice; Oral Tradition in African American Literature* (New York, 1991), p. 171

하지만 밀크맨은 살리머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나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었고 파일럿와의 연대감을 느낀다.

He didn't feel close to the people in Shalimar, but he did feel connected, as though there was some cord or pulse or information they shared. Back home he had never felt that way, as though he belonged to anyplace or anybody... But there was something he felt now - here in Shalimar, and earlier in Danville - that reminded him of how he used to feel in Pilate's house. (293)

그는 살리머의 사람들과 가까워졌다는 느낌은 없었지만 그들과 무언가 공유하고 있다는 연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 집에서는 자기가 낯선 곳에 와 있고 낯선 사람들 사이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여기 살리머에서, 그리고 전에 덴빌에서 느낀 감정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다. 그리고 그 느낌은 전에 파일럿의 집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상기시켜 주었다.

더 나아가 밀크맨에게 있어서 가족이 중요한 존재로 다가오고 자기 가족의 역사에 대해 무수한 의문을 가지며 그 의문의 많은 부분의 답을 아이들이 부른 솔로몬의 노래를 해석함으로써 얻게 된다.

Jake the only son of Solomon  
Come booba yalle, come booba tambee  
Whirled about and touched the sun  
Come konka yalle, come konka tambee

Left that baby in a shite man's houes  
Come booba yalle, come booba tambee  
Heddy took him to a red man's house

Come konka yalle, come konka tambee

.....

Solomon done fly, Solomon done gone

Solomon cut across the sky, Solomon gone home. (306)

제이는 솔로몬의 독생자

컴 부바 알레, 컴 부바 탐비

하늘로 날아올라 태양을 만지네

컴 콘카 알레 컴 콘카 탐비

그 아이를 백인 집에 남겨두고

컴 부바 알레, 컴 부바 탐비

헤디는 그를 인디언 집으로 데려갔네

컴 콘카 알레, 컴 콘카 탐비

.....

솔로몬은 날아갔네, 솔로몬은 가버렸어

솔로몬은 하늘을 가로질러 고향으로 돌아갔네

밀크맨은 솔로몬의 비상(Solomon's Leap), 리나의 계곡(Ryna's Gulch)<sup>41)</sup>, 제이크(Jake), 헤디(Heddy) 등에 얽힌 의혹을 풀고 나서 "혼란스런 마음이 되나

---

41) 살리머 주민들은 솔로몬이 날아갔던 곳과 그의 아내 리나가 이를 애통해 하던 곳에 'Solomon's Leap'. 'Ryna's Gulch'라는 이름을 지어 선조의 과거를 기억하고 있으며 솔로몬에 대한 전설을 아이들 놀이의 노래로 불러서 과거에 대한 기억을 보존하고 있다. 솔로몬에 관한 이 노래는 앨라배마에 살던 작가의 모계 계보에 관한 실제 노래를 변형시킨 것이라고 한다. ; Joyce M. Wegs "Toni Morrison's *Song of Solomon*: a Blues Song" *Essays in Literature* (1982)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놓여 있는 선물 상자를 마주하는 아이처럼 흥분한다. 많은 선물 더미들 중에 그를 위한 선물이 있을 것이다. 그는 살아오면서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이고 행복하다."(Milkman was getting confused, but he was as excited as a child confronted with boxes of presents under the skirt of a Christmas tree. Somewhere in the pile was a gift for him. He was as eager and happy as he had ever been in his life) (304) 밀크맨은 두 번째로 수잔 버드를 방문하고 나서 기쁨에 넘친다. 그는 몸이 더러워져 스위트(Sweet)가 물뱀이 있다고 주의를 준 연못 속으로 뛰어 들었는데 이 수영은 매우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육체적 세례의식을 통해 그의 물질적 부, 이기심, 금에 대한 욕망 등 과거의 그의 모습을 씻어 내고 자신의 종족, 가족의 문제로 돌아오게 된다. 기타와 밀크맨이 파일럿의 집에서 뼈가 들어있는 자루를 훑치기 바로 전에 흰 공작새를 보았었다. 그 때 밀크맨이 왜 그 새가 날 수 없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자 기타가 "꼬리가 너무 많아서 그래. 그것 때문에 체중이 아래로 처지지. 허영심처럼 말이야. 그런 것들을 달고는 아무도 날 수가 없지. 너도 날고 싶다면 너를 아래로 잡아끄는, 필요없는 것들을 모두 버려야 해 "(Too much tail. All that jewelry weighs it down. Like vanity. Can't nobody fly with all that shit. Wanna fly, you got to give up the shit that weighs you down)라고 말했었다. (179). 밀크맨은 귀중품이나 물질적인 소유물로부터 해방되고 나서야 그도 또한 비상할 수 있는 길을 알게 된다.

밀크맨은 그의 증조부인 솔로몬이 억압적인 노예생활에서 벗어나 아프리카에 있는 고향으로 날아갔다는 사실이 기뻐다. 그가 너무 행복해 해서 술에 취한 것이라는 생각하는 스위트에게 그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황홀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And he began to whoop and dive and splash and turn. " He could fly!  
You hear me? My great-granddaddy could fly! Goddam!" He whipped the

water with his fists, then jumped straight up as though he too could take off, and landed on his back and sank down, his mouth and eyes full of water. Up again. Still pounding, leaping, diving... " Oh man! He didn't need no airplane. He just took off, got fed up. All the way up! No more cotton! No more bales! No more orders! No more shit! He flew, baby. Lifted his beautiful black ass up in the sky and flew on home. Can you dig it? Jesus God, that must have been something to see."(328)

그는 환호성을 지르며 물 속으로 뛰어들어 물을 튀기며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그는 날 수 있었어.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날 수 있었다고!” 그는 주먹으로 물을 철썩 치고는 그도 역시 솟아 오르려는 듯 위로 뛰어 올랐다가 다시 내려와서는 물 아래로 가라 앉았다. 그의 입과 눈은 물에 푹 잠겼다. 다시 솟아 올랐다. 여전히 물을 치고, 뛰어오르고, 다이빙하고... “오! 그는 비행기도 필요 없었어. 그냥 뛰어 오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늘로 날아오른 거야. 더 이상 목화 송이를 딸 필요도 없었고, 더 이상 비참한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고, 백인 주인의 명령을 들을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육 먹을 일도 없게 된거야. 그가 날았다고. 하늘로 아름다운 검은 엉덩이를 치켜들고 고향으로 날아간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오 하느님, 그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을 거야.

밀크맨이 느끼는 기쁨의 일부는 비상에 대한 매혹에서 기인하는데 모리슨은 그것을 작품 전체에 걸쳐서 암시한다. 예를 들면 작품의 시작 부분에서 “태어난 아기는 네 살이 되자 예전에 스미스 씨가 깨달았던, 새들이나 비행기만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자신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와 같은 상태에서 살아야만 한다는 사실은 아이를 슬프게 했다.”(When the little boy discovered, at four, the same thing that Mr. Smith had learned earlier - that only birds and airplanes could fly - he lost all interest in himself. To have to live without that single gift saddened him) (9) 라고 설명했고 그와

기타가 공작새를 보았을 때 그는 “날 수 있는 어떤 것을 보는 것에 대한 순수한 기쁨을 느낀다”(felt again his unrestrained joy at anything that could fly)(178) 그리고 그가 찾고자 하는 금 자루를 살찐 비둘기에 비유하는데 이것은 밀크맨이 금이 그에게 자유를 가져다준다고 믿기 때문에 비상과 자유의 이미지를 연결시킨 것이다.

밀크맨이 그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되고 솔로몬의 노래의 의미를 해석했을 때 그가 비상에 대해 느끼는 매력은 파일럿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진다. 살리머에서 어떤 사람이 그녀의 이름을 ‘pilot’이라고 잘못 듣고서 밀크맨에게 “그녀는 날 수 있는가?”(She do any flying?)라고 묻는다. (283) 그는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파일럿은 소설 전체에 걸쳐서 자유롭고 세상을 초월한 듯한 인물로 그려진다. 흥미롭게도 밀크맨이 파일럿을 살리머로 데리고 올 때 그녀는 비행기를 타려고 하지 않는데 그것은 그녀가 날기 위해서 비행기와 같은 인공적이 수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녀가 죽고 나서 새 한 마리가 날아와 그녀의 귀걸이를 가지고 가는데 이 때 밀크맨은 왜 그가 파일럿을 그토록 좋아했던가를 깨닫는다. 그녀는 비록 땅에서 떠나지는 않았지만 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좀 더 크게 보았을 때 밀크맨을 이 시점까지 오는데 조종사(pilot) 역할을 하고 그에게 가족의 가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할 줄 아는 마음을 가르친 것은 바로 파일럿였다.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밀크맨이 비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므로 가장 논의가 활발하다. 예를 들면 로버트 버틀러(Robert James Butler)는 밀크맨이 공중으로 뛰어 오르는 것은 초월적인 행동으로 보여질 수도 있으나 그것은 로버트 스미스가 자선병원의 지붕에서 뛰어내린 것과 같은 정신 이상적인 행동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밀크맨이 자기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탈출행동이라고 말한다. 루비아노(Lubiano) 역시 밀크맨을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는데 그는 밀크맨이 그의

과거에 대한 인식이 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지 못하고 파일럿을 죽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루비아노는 밀크맨의 비상을 아내와 자식들을 버리고 간 솔로몬의 이기적인 비상과 연관시키는데 그의 비상은 노예였던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고, 비상을 통해서 아무 것도 얻는 것 없이 죽음에 이를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학자들은 밀크맨의 비상이 자기의 가족과 종족을 수용하고 자신에게만 몰두했던 과거를 초월하는 상징적 행동이라고 보면서 긍정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 패트릭(Patrick Bryce Bjork)은 밀크맨의 비상 이전에는 비상에 대한 모든 이미지와 장면이 죽음 또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밀크맨의 비상은 그가 처한 환경을 수용함으로써 그것을 초월하는 의미를 가진다. 파일럿과 살리머로 돌아오기 직전 밀크맨은 헤거의 죽음에 책임감을 느끼고 그녀의 머리카락을 상자 속에 넣어 가지고 다닌다. 밀크맨은 자기가 헤거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자기가 기타로부터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음도 알게 된다. 솔로몬과는 달리 밀크맨은 날 수는 없었지만 현신을 통해서만이 자기가 자유로와 질 수 있음을 깨닫는다.<sup>42)</sup>

그러나 밀크맨의 현신은 기타의 것과는 현격하게 다른 종류의 것이다. 기타는 세븐 데이즈와 금에 현신하고 있으며 밀크맨이 금과 관련해서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믿음에 따라 행동한다. 기타는 백인에 의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똑같이 되 갚아 주기 위해 세븐 데이즈에 참여한 것과 마찬가지로 밀크맨에게서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게 복수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기타는 그 때까지도 자기 소모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했던 것이다.

그와는 달리 밀크맨은 자기 자신에게 보다 다른 사람을 위할 줄 아는 사람

---

42) 모리슨이 제시하는 개인의 완전한 자유는 주변으로 밀쳐진 존재들 - 망각 속에 버려진 조상들과 사회에서 주변화 된 존재들 -을 포용하지 않고는 성취될 수 없으므로 타자에 대한 관심과 책임이 그 선행조건임을 역설한다. ; 김애주, 「토니 모리슨 연구」(한국문화사, 1999), p. 91.

으로 점점 바뀌어 간다. 살리머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파일럿과 그의 어머니가 그가 위협에 처했을 때 그의 목숨을 구해 준 유일한 두 사람인데도 그들 어느 누구에게도 차 한잔 대접하는 정도의 고마움의 표시도 하지 않았음을 깨닫는다.(331) 여행 덕분에 그는 자기 가족과 종족의 일원으로서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 여행을 통해 새로 태어난 밀크맨은 돈이나 아버지의 명성이 아니라 자신의 내부에서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제인 바커만(Jane Bakerman)은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As Milkman unravels - and re-weaves - the story of his ancestors, he also evaluates Guitar's concept of black responsibility, and the protagonist's triumph comes when he can interpret the lessons of all his friends and forebears to arrive at his own sense of himself as an able, mature, black man. A man who knows who he is can deal with danger, pain, violence, and love.<sup>43)</sup>

밀크맨이 자기 조상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또한 기타가 가지고 있는 흑인에 대한 책임감의 개념을 평가하게 된다. 밀크맨은 그의 모든 주변 사람들과 조상에게서 얻는 교훈을 통해서 능력있고 성숙한 흑인으로서의 자아에 도달하게 된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은 위협, 고통, 폭력, 그리고 사랑을 다룰 수 있는 것이다.

밀크맨의 자기 방어는 물리적인 것 이상의 것이다. 그는 마침내 진정한 영혼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그가 얻은 자유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밀크맨은 여행을 하고 나서 그리고 그의 가족과 종족에 대한 유대관계를 확립하고 나서 마침내 자기 인식에 도달하고 자유를 느낄 수 있게 된다. 그 결과로 그는 기타나 그의 왜곡된 사랑관이 그를 지배하는 것을 거부한다.

---

43) *Rev. of Song of Solomon by Toni Morrison* ( CLA Journal 21, 1978 ), p.448.

소설이 밀크맨이 총을 들고 있는 기타를 향하여 공중으로 뛰어 내리는 장면에서 끝을 맺는데 기타와 밀크맨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추측하기가 쉽지 않다. 밀크맨은 죽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이 후 밀크맨과 기타의 관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기타는 계속해서 파괴적인 행동을 할 것인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밀크맨이 기타를 향해 뛰어내림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자신을 성취하고 자유를 성취하는 길이라는 인식을 행동으로 실천하였다는 점이다. 여기서 밀크맨은 증조 할아버지의 이기적인 비행이 아니라 땅을 떠나지 않고서도 날 수 있는 파일럿의 이타적인 비행을 수용한다. 이런 의미에서 밀크맨의 도약은 현실도피가 아니라 자유와 참여가 조화된 행동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기타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긍정적인 흑인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된다. 모리슨은 흑인 공동체 의식이 흑인 삶에 있어서 중요하긴 하지만 되 값아 주기 식의 보복을 강조하는 흑인민권운동에 의해 손상되었다고 본다.

멜리사 위커는 밀크맨이 마틴 루터 킹의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기타는 말콤 엑스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144) 밀크맨이 비록 소설 전반기에는 전혀 킹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흑인으로서의 자기 모습을 인정하고 자기를 사랑하게 되며 기타의 공격적인 행동이 헛된 것임을 인식함에 따라 점점 그의 모습과 같아지고 있다.

모리슨은 인종차별의 장벽을 깨뜨리고 흑인들이 보다 더 나은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좀 더 편리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중요함을 잘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복잡하고 미묘한 인종 문제에 대하여 쉬운 답을 내리는 것은 피하고 있으며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그녀는 기타와 밀크맨을 통해 흑인으로서 지녀야 위엄과 공동체 의식이 중요함을 보여 주었다.

## V. 결론

멜리사 위커는 그녀의 저서의 서장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제기한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sup>44)</sup> 이와 같은 질문이 「솔로몬의 노래」에 함축되어져 있다.

모리슨이 1970년대에 「솔로몬의 노래」를 집필할 때 흑인민권운동은 아직 진행 중이었고 여러 측면에서 보았을 때 아직도 흑인민권운동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963년 흑인민권운동이 절정에 이른 후에 백인들의 반격이 증가하였다. 흑인민권운동이 물론 흑인들의 기본적인 민권을 많이 보장해 주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모리슨은 「솔로몬의 노래」에서 역사적인 암시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흑인민권운동이 활발하였던 1950년대와 60년대를 중심으로 하여 그 이전과 그 시기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그녀는 미국에서 흑인들이 흑인차별 정책과 백인의 인종주의에 의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거의 모든 등장인물들을 통하여 날카로운 관점으로 그리고 있다. 마콘 1세는 그가 가진 재산으로 인해 백인에게 살해당하였고 마콘 2세는 경찰에게 뇌물을 주었으며 루스는 밀크맨을 낳기 전까지는 자선병원에서 진료 받는 것을 거부당했고 파일럿은 기차에 탈 수 없었으며 기타의 아버지의 고용주는 기타의 아버지가 작업 중에 죽었지만 그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

반면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말콤 엑스 그리고 존 에프 케네디와 같은 인물에 대한 암시는 흑인민권운동 중에 이루어진 진보된 측면과 관련을 맺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진보라는 것도 기타와 세븐 데이즈 단원들과 같이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하는데 진저리가 난 많은 흑인들의 고통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리고

---

44) *Down from the Mountaintop : Black Women's Novels in the Wake of the Civil Rights Movement, 1966-1989* ( New Haven: Yale UP, 1991 )

에밋 킬의 살해사건과 같은 백인들의 흑인에 대한 끊임없는 보복행위를 생각해 봤을 때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모리슨은 「솔로몬의 노래」에서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흑인들을 위해서 몇 가지 선택 안들을 제시한다. 그녀는 루스, 레나, 코린시안스가 선택한 수동적인 삶의 태도는 상대적으로 적게 다루면서 기타와 같은 인종주의자적인 태도나 마콘과 헤거처럼 백인중심적 지배가치를 내면화하는 태도는 깊이 있게 탐구하고 있다. 모리슨은 어느 인물이든 완전히 선한 인물이나 완전히 악한 인물로 묘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타에 대해서 애정을 보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자유와 자신감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모리슨은 또한 “사악한 사람은 사악하게 사랑하고, 난폭한 사람은 난폭하게 사랑하며 허약한 사람은 허약한 사랑을 하며 바보스러운 사람은 바보같은 사랑을 한다. 그리고 자유로운 사람의 사랑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Wicked people love wickedly, violent people love violently, weak people love weakly, stupid people love stupidly, but the love of a free man is never safe)(159)라고 말한다. 기타는 자기 종족을 사랑하려고 시도하지만 그 사랑은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밀크맨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

「솔로몬의 노래」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결국은 모두 자기 파괴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기타 이외에도 가장 그런 성향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서시다. 그녀는 자기가 하녀로 있던 백인 주인집을 평생동안 지키며 살고 있는데 그녀의 유일한 소원은 그녀가 죽었을 때 그녀가 기르고 있는 개들이 뜰어 먹기 전에 누군가가 발견하여 주는 것이다. 밀크맨은 그녀가 고집스럽게 그 곳을 지키고 있는 것을 주인이었던 버틀러(Butler)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를 그곳에 남아있게 한 것은 사랑이나 충성심 때문이 아니라 복수심 때문이었다. 그와 비슷하게 기타는 그의 행동이 자기 종족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흑인을 사랑해서도 충직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도 아니었다. 단지 그를 자아 파멸의 길로 이끈 복수심에 불탔을 뿐이다.

하지만 모리슨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지는 않는다. 그녀는 헌신하는 마음과 공동체와의 연대를 통해 현재 처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대안을 파일럿을 통해 제시하는데 그것은 밀크맨의 덴빌과 살리머로의 여행을 통해서 확장된다. 처음에는 밀크맨의 여행이 개인적인 보상을 받는 여행 이상으로 보기 힘들어 보이지만 모리슨은 밀크맨의 자아탐구 여행을 세븐 데이즈에 연루된 기타의 파괴적인 행동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다.

밀크맨의 여행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그가 흑인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다. 처음에는 그는 백인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이며, 물질 중심적 사고방식에 젖어 있어 살리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에 불과했으나 비록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부유한 그 곳 사람들에게 의해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밀크맨은 살리머를 향해 남쪽으로 훨씬 더 깊이 여행함에 따라 그는 과거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 된다. 밀크맨이 살리머에 도착하는 것은 도시와 농촌의 만남으로 볼 수 있는 것과 동시에 과거 흑인 공동체와 현재 흑인 공동체의 만남으로 볼 수 있다. 모리슨은 “ 점점 더 많은 수의 흑인들이 상실감을 겪고 있다. 중요한 무언가가 우리에게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깊어질수록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용한 과거로 가는 길을 찾을 필요성이 더욱더 커진다.”(For larger and larger number of black people, this sense of loss has grown, and the deeper the conviction that something valuable is slipping away from us, the more necessary it has become to find some way to hold on to the useful past without blocking off the possibility of the future)(Recovering, p14)라고 말하였고, 또한 "조상을 죽이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다"(When you kill the ancestor you kill yourself)(Recovering, p344)라고 자주 언급하였다. 한 때 자기 성이 나타내듯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로의 삶을 살아왔던 밀크맨은 공동체와 과거와의 연대를 통해 정체성을 찾았다.

이렇듯 모리슨은 흑인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답을 과거와의 연계와 공동체에서 구하고 있다. 즉 현재 흑인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꺾박을 받고 차별대우를 받고 있지만 선조들이 일구어 놓은 우수한 문화와 이웃과 민족을 사랑하는 공동체 의식을 통해 흑인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앞으로 더 나은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 참 고 문 헌

### Text

Morrison, Toni. *Song of Solomon*, New York: Knopf, 1977

### References

Adams, A. John, and Joan Martin Burke, eds. *Civil Rights: A Current Guide to the People, Organization, and Events*. New York: Bowker, 1970.

Bjork, Patrick Brycer. *The Novels of Toni Morrison: The Search for Self and Place Within the Community*. New York: Lang, 1992.

Blake, Susan L. "Toni Morrison." *Dictionary of Literary Biography: Afro-American Fiction Writers After 1955*. Ed. Thadious M. David and Trudier Harris. Vol 33. Detroit: Gale, 1984.

Bouson, Brooks, *Quiet As It's Kept: Shame, Trauma, and Race in the Novels of Toni Morrison*. New York: Albany, 1999.

Branch, Taylor. *Parting the Waters: America in the King Years, 1954-63*. New York: Simon, 1988.

Bulter, Robert James. "Open Movements and Selfhood in Toni Morrison's Song of Solomon." *The Centennial Review* 28/29 (1984/1985).

Campbell, Jane. *Mythic Black Fiction: The Transformation of History*, Knoxville: U of Tennesse P, 1986.

Carmean, Karen. *Toni Morrision's World of Fiction*. Troy: Whitston, 1993.

- Christian, Barbara. "Community and Nature: The Novels of Toni Morrison." *Black Feminist Criticism: Perspectives on Black Women Writers*. New York: Pergamon, 1985.
- "Community and Nature: The Novels of Toni Morrison." *Black Feminist Criticism: Perspectives on Black Women Writers*. New York: Pergamon, 1985.
- Conner, Mark C. *The Aesthetics of Toni Morrison: Speaking the Unspeakable*. Jackson :University Press of Mississippi, 2000.
- David, Ron. *Toni Morrison Explained: A Reader's Road Map to the Novels*, New York: Random house, 2000.
- Estell, Kenneth, ed. *The African-American Almanac*. Detroit: Gale, 1994.
- Fabre, Genevieve. "Genealogical Archaeology or the Quest for Legacy in Toni Morrison' *Song of Solomon*." *Critical Essays on Toni Morrison*. Ed. Nellie Y. McKay. Boston: Hall, 1988.
- Foreman, P. Gabrielle. "Past-On Stories: History and the Magically Real, Morrison and Allende on Call." *Feminist Studies*18 (1992).
- Grewal, Gurleen. *Circles of Sorrow, Lines of Struggle: The Novels of Toni Morrison*. Louisiana: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98.
- Jones, Bessie W, and Audrey L. Vinson. *The World of Toni Morrison: Explorations in Literary Criticism*. Dubuque: Kendall, 1985.
- Morrison, Toni. "Conversation with Alice Childress and Toni Morrison." 1974. *Conversations with Toni Morrison*. Ed. Danille Taylor-Guthrie. Jackson: UP of Mississippi, 1994.
- Interview with Nellie McKay. 1983. *Contemporary Literature* 24 (1983).
- *Playing in the Dark: Whiteness and the Literary Imagination*. New York: Vintage, 1992.

- "Recitatif" *Confirmation: An Anthology of African American Women*. Ed. Amiri Baraka and Amina Baraka. New York: Morrow, 1983.
- "Rediscovering Black History" *New York Times Magazine* 11 Aug. 1974.
- Pinsker, Sanford. "Magic Realism, Historical Truth, and the Quest for a Liberating Identity: Reflections on Alex Haley's *Roots* and Toni Morrison's *Song of Solomon*." *Studies in Black American Literature Volume I: Black American Prose Theory*. Ed. Joe Weixlmann and Chester J Fontenot. Greenwood: Penkeville, 1984.
- Reed, Harry. "Toni Morrison, *Song of Solomon* and Black Cultural Nationalism." *The Centennial Review* 32 (1988).
- Royster, Philip M. "Milkman's Flying: The Scapegoat Transcended in Toni Morrison's *Song of Solomon*." *CLA Journal* 24 (1982).
- Samuel, Wilfred D, and Clenora Hudson-Weems. *Toni Morrison*. Boston: Twayne, 1990.
- Simpson, Melissa High. "The Civil Rights Movement in Toni Morrison's *Song of Solomon*", Denton: Texas, 1996.
- Sitkoff, Harvard. *The Struggle for Black Equality: 1954-1992*. New York: Noonday, 1993.
- Smith, Amanda. "Toni Morrison" *Publisher's Weekly* 21 Aug. 1987.
- Smith Valerie "Introduction" *New Essays on Song of Solomon*. New York: Cambridge UP, 1995.
- "Toni Morrison's Narratives of Community." *Self-Discovery and Authority in Afro-American Narrative*. Cambridge: Harvard UP.
- Story, Ralph. "An Excursion into the Black World: The 'Seven Days' in Toni Morrison's *Song of Solomon*." *Black American Literature Forum*

23 (1989).

Walker, Mellissa. *Down from the Mountaintop: Black Women's Novels in the Wake of the Civil Rights Movement, 1966-1989*. New Haven: Yale UP, 1991.

Wedertz-Furtado, Utelinde. "Historical Dimensions in Toni Morrison's Song of Solomon." *History and Tradition in Afro-American Culture*. Ed. Gunter H Lenz. New York: Campus Verlag, 1984.

Weixlmann, Joe "Culture Clash, Survival, and Trans-Formation: A Study of Some Innovative Afro-American Novels of Detection." *Mississippi Quarterly* 38 (1984-85).

Willis, Susan. "Eruption of Funk: Historicizing Toni Morrison." *Specifying: The Black Woman Writing the American Experience*. Madison: U of Wisconsin P, 1987

김성곤. 「미국 현대 문학」. 서울 : 민음사, 1997.

김애주. 「토니 모리슨 연구」. 서울 : 한국문화사, 1999.

박상두. "미국 흑인들의 민권운동 - 1950-60년대를 중심으로 -". 서울 : 인하대학교, 1993.

오미경. "Toni Morrison의 작품에 나타난 흑인의 정체성 연구". 서울 : 건국대학교, 2001.

이승은. "Toni Morrison 연구 : 흑인 공동체와 여성의 자아인식".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1995.

이승은. 「토니 모리슨」. 서울 : 평민사, 1999.

장태한. 「흑인, 그들은 누구인가」. 서울 : 한국경제신문사, 2001.

최명숙. "토니 모리슨의 「솔로몬의 노래」 연구 : 바람직한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구현". 서울 : 서울시립대학교, 2002.

## ABSTRACT

### A Study of the Process of Searching for Black Identity in Toni Morrison's *Song of Solomon*

*Ahn Yeonghee*

Major in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Seong-soo, Dr. Litt.

The main topic of Toni Morrison's novels is searching for Black identity through tie with Black community and traditional value. Morrison focuses on main character's establishment of self through resisting racial discrimination and restoring and handing over the unique Black culture.

This thesis aims to examine the racial discrimination Black people go through and Civil Rights Movement, and White people-centered Ideology in *Song of Solomon* and to study how these relate to the characters and how these relate to pivotal events in Milkman's journey for his identity.

In 1930's and 40's more and more Black people take part in social activities and gain recognition. As a result they initiate Civil Rights Movement, which is movement for achieving civil rights against constant discrimination and inequality since they arrived in America. One of the

aims of Movement is unifying Blacks into a community. The narrative of *Song of Solomon* begins in 1931 and its pivotal events occur during 1963, a climactic year of the Civil Rights Movement. And the novel focuses on the relationships of individuals to their communities.

Many scholars approach the topic of *Song of Solomon* with various points of view. However main contents are Milkman's establishment of Black identity through the journey toward self-knowledge and reunion with community. Also it is important that Morrison weaves events in Milkman's life together with events of national concern in America during the Civil Right Movement. Her juxtaposition of Milkman's journey with facets of the Civil Right Movement enables the reader to perceive that this period during which the black race was trying to gain freedom provides an illuminating parallel for the individual liberation that Milkman and other characters seek.

The significant dates, people, events, and policies to which Morrison alludes in *Song of Solomon* fall into two groups. The first group is made of those which reflect the racist attitudes of whites. and the second one is made of those which parallel personal struggles in character's lives.

Through her use of historical allusions in *Song of Solomon*, Morrison explores much of the territory before and during 1950s and 60s segments of the Movement. Certainly, she brings negative aspects of black treatment in America into sharp focus as nearly every character in the novel is touched in some ways by Jim Crow laws and white racism. And she reveals the alternative that they can transcend their circumstances through commitment and a connection to community, which Morrison expands on through Milkman's journey to Danville and Shalimar.

Morrison seeks the answer of the question that where will the Black

people go in a connection to the past and community. In other words, though Black people suffer socially and economically and are discriminated now, they will surely lead better life in the future with ancestor's excellent culture and community spirit.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English Education) in February, 2004